

3-1-2007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Chang Jun Kim 김창준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김창준,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효과적인 훈련: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7.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TRAINING FOR AN EVANGELISTIC LIVING

written by

CHANG JU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Sun Il Kim

Moon Sang Kwon

Seyoon Kim

March 1, 2007

TRAINING FOR AN EVANGELISTIC LIVING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ANG JUN KIM

MARCH 2007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 훈련: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선 일 교수

김 창 준

2007년 3월

Abstract
Training for an Evangelistic Living
Chang Jun Kim
Doctor of Ministry
200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deals with a church evangelism and its training as an essential task of the Church given by Jesus Chris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recognize the necessity evangelism and to provide church members with many practical ways of evangelism so as to involve in and advocate a self-confidence in church ministry.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introduce and analyze the strategy and practice of evangelism and further suggest an appropriate way of church ministry in Sornang Presbyterian Church.

First of all, I delineate a biblical meaning and necessity of evangelism and examine biblical models and principles in terms of evangelism. The basic assumption of my study is that evangelism means a kind of function of obeying God's commandment and at the same time an inevitable condition for the health and growth of a local church. In addition to this, through my research I find that evangelism also necessitates for individual spiritual formation.

Second, I try to understand evangelism in terms of method with a Trinitarian perspective. God the Father reveals His love through our evangelism; Through Jesus the Son, the agent of God's love, God communicates with his people; God the Holy Spirit motivates us to share the Gospel to end of the earth. For more effective evangelism, we also need to practice it in our real lives: evangelism as a life. For this practice, we first and foremost should understand what the Gospel is by equipping ourselves with spiritual a training and formation: right relationship with God, unceasing prayer, and committed life.

Third, I introduce many previous and current ways in relation to evangelism before suggesting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ones. I introduce some methods such as 'Evangelism Explosion,' 'Four Spiritual Laws,' and my denominational evangelism training guide by analyzing each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ways.

Fourth, I examine the evangelism training courses of Somang Church for the last three years. In this part, I investigat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in which Somang Church is located. Then, I evaluate my church's evangelism process by looking into the period, organization, course, and assignment and articulate more effective ways for my church.

In conclusion, evangelism is not an optional but necessary ministry for an individual and communal spiritual formation as well as a steady and healthy church growth. I look forward to seeing the accomplishment of God's Kingdom by participating in this evangelistic ministry.

Theological Mentors: Sunil Kim, Ph. D.

Moon Sang Kwon, Ph. D.

Seyoon Kim, Ph. D.

감사의 글

언제나 시작할 때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나,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나,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나, 한결같이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셔서 이루게 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세심한 검토와 조언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김선일 박사님과 언제나 친절과 배려로 도움을 주셨던 풀러신학대학원의 김태석 목사님과 이석환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정을 마치기까지 귀한 강의를 해 주셨던 모든 교수님들과 특히 목회학박사 전체 과정을 이끄시는 김세운 박사님, 그리고 모든 학교 관계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김지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내 논문의 원천이 되어준 소망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섬기는 동역자 모든 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부하고 글을 쓸 때마다 많은 힘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사랑하는 아내 김진이 사모, 그리고 늘 나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는 두 딸 현아와 윤아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7년 1월 김창준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전도의 생활화에 대한 필요성	6
제 1 절 성경에서 본 전도의 필요성	6
1. 전도의 정의	7
가. 행위적 관점에서 본 전도	7
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전도	9
2. 구약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필요성	11
3. 신약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필요성	13
가. 예수님의 전도사역과 전도명령	13
나. 사도들의 전도사역과 전도명령	16
제 2 절 전도훈련의 필요성	20
1. 하나님의 명령 수행	20
2. 교회의 건강과 성장	22
3. 개인의 영적 성장	24
제 3 장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준비	27
제 1 절 전도의 방법에 대한 신학적 이해	28
1. 성부 하나님과 전도	29
2. 성자 예수님과 전도	31
3. 성령과 전도	35
제 2 절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필요조건	38
1.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38

2 다양한 방법의 연습	39
3 영적 준비	41
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41
나. 기도의 생활화	43
다. 사랑의 나눔	46
제 4 장 기존의 전도훈련 분석	48
제 1 절 전도 폭발 훈련	48
1. 훈련의 특징	49
가. 훈련의 개요	49
나. 전도 폭발 복음 제시 내용	49
다. 훈련의 특성	52
2. 장점과 단점	53
제 2 절 4영리 전도법	55
1. 훈련의 특징	55
가. 훈련의 개요	55
나. 훈련의 내용	56
다. 훈련의 특성	57
2. 장점과 단점	58
제 3 절 총회 전도학교	59
1. 훈련의 특징	60
가. 훈련의 개요	60
나. 훈련의 내용	60
다. 훈련의 특성	62
2. 장점과 단점	62
제 4 절 그 밖의 전도훈련	64
1. 관계 중심 전도	64
2. 소그룹 전도	68

3. 고구마 전도법	74
제 5 장 소망교회의 전도훈련	78
제 1 절 지역분석 및 전도대상자 연구	79
1. 지역분석	79
2. 전도대상자 연구	80
제 2 절 전도 훈련	82
1. 훈련의 방법	82
가. 훈련기간과 시간의 운영	82
나. 훈련과정과 과제물	83
2. 훈련의 내용	86
가. 복음에 대한 이해	86
나. 전도의 자신감 고취	88
다. 전도의 필요성	89
라. 4영리 전도법	91
마. 반대질문 처리법	94
바. 현장 실습	96
사. 성령충만과 기도	97
제 6 장 전도훈련에 대한 평가 및 분석	101
제 1 절 전도훈련에 대한 평가	101
1. 훈련의 내용	101
2. 진행사항과 일정	103
3. 강의와 과제물	103
4. 전도활동과 훈련에 대한 평가	104
5. 전도학교의 장점	105
6. 단점과 건의사항	105
제 2 절 평가에 대한 분석	106

1. 설문 의 결과 에 대한 분석	107
2 분석 에 따른 개선점	112
 제 7 장 결론	118
제 1 절 요약	118
제 2 절 제언	121
 참고문헌	126
 Vita	131

그림 목차

<그림 1> 소망교회가 위치한 신사동 주변지도	79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선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 모든 존재 이유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마 28:18-20)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교회의 핵심과제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김명용은 “교회가 참으로 사도들의 정신에 충실한 사도적 교회이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도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전도를 지상과제로 생각지 않는 교회는 참된 사도적 교회가 아니”¹⁾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공동체²⁾라고 정의할 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개개인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개개인의 성도들은 교회의 사명인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필요를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함으로써 교회의 기능을 수행해 나간다. 하지만 여기서 전도하는 일이 성도로서의 중요한 책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21세기의 교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 교회에서도 성도 개개인에게 전도를 가르쳐야만 하며, 성도들은 전도를

1)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29.

2) Ibid., 14.

배우고 훈련하여 실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목회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목사도 한 사람의 전도자이다.³⁾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옥한흠은 *오이코스 전도 폭발*의 추천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성장의 정체는 무엇보다 전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이제 전도는 소위 은사를 받은 소수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고, 일반 교인들은 전도 불감증에 걸려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세상에서 본연의 임무를 행하지 못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교인들에게 '전도'라는 말은 어색함과 두려움, 심지어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⁴⁾

옥한흠은 그의 저서 *전도자*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몇 명을 전도하느냐보다 전도가 체질화된 평신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⁵⁾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소망교회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다.

소망교회는 1977년 8월 24일 11명의 성도들이 모여 삼일 기도회 모임을 가짐으로 태동하였다. 이어서 1977년 10월 2일 한 성도의 가정을 예배 장소로 택하여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 소망교회'를 공식적으로 창립하였다. 1978년 6월 25일에는 상가 건물의 한 층(현대종합상가 3층, 110평)을 빌려 예배 장소를 옮겼고, 그 후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1981년 11월 15일 지금의 자리(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4번지)에 예배당을 건축하였으며 1987년 12월 19일 본 예배당을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⁶⁾

그러므로 소망교회는 2007년에 창립 30주년이 되는 교회인데, 창립 이후 해마다 급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약 60,000여명의 재적교인이 등록된 상태이다. 이러한 소망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전도집회 같은 일반적인 교회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과 다르게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임윤택이 지적하는 것처럼 특별한 전도프로그램 없이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 소망교회의 성장이 가지고 있는

3) Richard Armstrong, *The Pastor As Evangelis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53.

4)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4.

5) 옥한흠, *전도자* (서울: 규장, 2000), 6.

6) 박요셉, *새 세대의 목회를 위한 교회성장원리* (서울: 서울프레스, 2000), 73.

특징이다.⁷⁾

이러한 성장배경을 지닌 소망교회이므로 교인들이 전도에 대해서 배울 기회나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였다. 따라서 어떻게 전도를 배우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이 전무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도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소망교회의 성도들은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그저 담임목사의 리더십과 목회철학, 설교의 능력 그리고 자연적 성장의 흐름에 편승하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일에만 주력하는 교인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세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거의 인식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둔화되어 있는 전도의식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의 필요성을 고취하고,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실제로 전도하는 훈련을 실행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하에 본 연구자는 소망교회에서 2004년부터 소망전도학교를 개설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전도 훈련을 통하여 현장의 경험을 살리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훈련을 통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성도가 교회와 성도의 핵심과제인 전도의 사명을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러한 실험적 훈련의 결과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성도 개개인에게 전도훈련을 시키고, 그 전도훈련의 내용과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분석함으로서 성도의 전도적 사명을 고취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임운택, *소망교회 이야기* (서울: 베드로서원, 2001), 23.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전도에 있어서 전도의 의미를 인식시키고, 전도를 생활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훈련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다.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먼저 대두된다. 따라서 2장에서는 전도의 생활화에 대한 필요성의 문제를 먼저 다룬다. 여기서는 먼저 전도의 정의를 살펴본다. 이 때 전도의 정의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 중에 행위적 관점에서 본 전도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전도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게 된다. 특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들의 전도를 사역과 명령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필요의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3장에서는 전도의 생활화를 위해 준비할 것들을 점검하는 데 먼저 전도의 방법에 대하여 신학적 이해의 틀을 마련한다. 이 때 이해의 틀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본 전도로서 성부 하나님과 전도, 성자 예수님과 전도 그리고 성령님과 전도를 살펴본다. 이어서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써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다양한 전도의 방법을 연습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하게 된다. 영적 준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기도의 생활화, 사랑의 나눔을 연구한다.

4장에서는 효과적인 전도 훈련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기존의 다양한 전도 훈련을 분석한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세 가지 전도훈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여기에는 전도 폭발 훈련, 4영리 전도법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의 전도부에서 실시하는 전도학교가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훈련에 대하여 훈련의 개요, 내용, 특성 그리고 장단점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전도훈련으로써 관계 중심 전도, 소그룹 전도, 고구마 전도법 등을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소망교회에서 실제로 실시되었던 전도훈련의 과정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는 소망교회 주변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 내에 거주

하는 전도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먼저 진행된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여건 하에서 전도학교를 통해 실시되었던 훈련의 방법과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훈련의 방법에서는 훈련 기간과 시간의 운영, 훈련과정과 과제물 등을 다룬다. 훈련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이해, 전도의 자신감 고취, 전도의 필요성, 4영리 전도법, 반대 질문 처리법, 현장 실습, 성령충만과 기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6장에서는 위에서 실시한 전도훈련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하게 된다. 매년 전도학교를 수료하면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의 과정에 대한 설문문을 받았는데, 그 설문문을 통하여 전도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기초로 하여 전도학교를 분석 검토하게 된다. 설문문의 내용은 주로 훈련의 내용, 진행사항과 일정, 강의와 과제물, 전도활동과 훈련에 대한 평가, 전도학교의 장점, 단점과 건의사항 등이다. 이를 통하여 설문문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분석에 따른 개선점을 모색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훈련을 수행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 7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소망교회와 한국교회 안에서 효과적인 전도훈련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되었던 전도훈련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전도폭발 전도훈련, 한국 대학생선교회의 4영리 전도훈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전도학교에서 실시하는 전도훈련에서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또한 본 논문은 소망교회와 소망교회에서 3년간 실시하였던 전도훈련에 한정된 연구임을 밝힌다. 따라서 개 교회가 창의적으로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논문이므로 보편적 적용의 가능성은 미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건강한 성도의 양육과 함께, 건전한 교회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도훈련을 위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전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제 2 장

전도의 생활화에 대한 필요성

전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전도를 이해하고 왜 전도를 배워야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다. 전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전도를 훈련하는데 있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첫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성경에서는 전도에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도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전도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 1 절 성경에서 본 전도의 필요성

전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전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가져왔다. 그 많은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는 현대신학에 있어서 전도의 정의를 전도의 어원과 함께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전도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전도를 정의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하여 우리가 왜 전도를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게 된다. 이것은 전도가 실제로 실행되었던 사도들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왜 전도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전도의 당위성을 알게 된다. 이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전도의 사역과 예수

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전도의 명령을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사도들도 어떻게 전도의 사역을 행하였으며, 그들이 또한 어떻게 전도의 명령을 행하였는지 서신서들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게 된다.

1. 전도의 정의

가. 행위적 관점에서 본 전도

전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될 수 있다. 먼저, 김형천은 그의 저서 *효과적인 복음전도*에서 전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복음전도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성령의 도움으로 전파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하늘나라 확장 운동이며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며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사명인 것이다.⁸⁾

이러한 전도의 정의는 전도의 행위 보다는 전도의 사역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전도 대상자의 삶이나 행동의 변화에 근거한 전도적 활동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전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신학의 의미에 치중한 정의가 된다. 한편 김연택은 전도의 결과적 측면에서 전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다.

전도는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고후 5:17-21).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는 있지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일이다(엡 2:1-5).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라고 분부하였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야 한다. 전도는 어떤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나 어떤 교단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8) 김형천, *효과적인 복음전도*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7), 47.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의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를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일이다.⁹⁾

이러한 김연택의 정의는 전도를 위한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도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소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행위가 전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도를 행위적 관점에서 보는 의미의 중요성은 레이튼 포드에 의해 더 명확해진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의 정의를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복음전도(evangelism)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전도자(evangelist)라는 단어도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 물론 집사 빌립을 전도자로 불렀고(행 21:), 디모데가 “전도인의 일”을 한다고 되어 있고(딤후 4:5),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 중 하나라고 기술했다(엡 4:11). 그러나 복음전도라는 말의 동사형은 신약에 종종 등장한다. 유앙겔리조(euaggelizo)라는 이 말은 본래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신약에 50회 이상 쓰이고 있다.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 동사를 사용했다(눅 2:10). 예수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막 1:4).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사람들을 복음화시켰다고 말했다(고전 15:2). 복음전도에 관하여 말할 때 동사형을 쓴 것을 보면, 성경이 복음전도에 있어서 행동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전도라는 말의 동사형이 신약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것처럼 전도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행동이다. 어떠한 행동을 전도로 볼 것인가가 전도의 정의를 내리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실제로 성경에서 전도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은 대부분 동사로 되어 있다.

신약성경에 72회 정도 나오는 단어인 ‘유앙겔리조’(ευαγγελικῶ)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뜻으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5)고 하셨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마 4:23)고 했을 때는 ‘케룻소’(κηρυσσω)가 사용

9)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257.

10) Leighton Ford,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Good News is for Sharing*), 이숙희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5), 14.

되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전파했다”고 했을 때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주로 ‘전파하다’는 의미로 번역되었다. 가르침의 의미를 지닌 ‘디다스코’(διδασκω)는 예수님의 복음전도를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라고 할 때 “가르치다”는 단어가 전도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김형천은 “우리가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 받아야 할 것이며 그의 교육방법을 배워 가르쳐야 할 것”¹¹⁾이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라고 하실 때 이 “제자를 삼다”는 헬라어 동사 ‘마데투스테’(μαθητευσατε)가 사용되었다. 이 역시 동사로서 전도가 행위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전하거나,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혹은 제자를 삼거나 전도의 의미는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전도에 대한 정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도는 실천을 요구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실천적 의미가 강조될 때 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¹²⁾이라는 마이런 옥스버거의 주장이 전도의 정의로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전도

전도를 정의하는 또 하나의 시각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찰스 크래프트는 “커뮤니케이션이란 한 약속된 기호를 통하여 서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과정 및 행동”¹³⁾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대로라면 전도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왜냐하면 전도는 약속된 기호인 언어를 사용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메

11) 김형천, *효과적인 복음전도*, 45.

12) Calvin Ratz, Frank Tillapaugh, and Myron Augsburger, *선교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Mastering Outreach & Evangelism*), 이재성 역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4), 18.

13) Charles H. C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3.

시지를 보내고 받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 대상자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방식을 통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 크래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으로서의 피조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나타낸다.¹⁴⁾

이에 대하여 뵘에르 바벡도 “그리스도인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정한 선물을 받은 출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이며 그 선물은 계시인 동시에 원초적 충동”¹⁵⁾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즉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¹⁶⁾ 그러나 하나님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위하여 죄의 극복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따라서 전도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가는 행동이다.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전도를 정의하자면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매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14) C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15.

15) Pierre Babin,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시대(The New Era in Religious Communication)*, 유영난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3), 108.

16) C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16.

2. 구약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필요성

구약성경은 직접적으로 전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모세의 인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같이 야굽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출 19:3-6, 한글개역)¹⁷⁾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인 것이다.¹⁸⁾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세계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따라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광순은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하신 관심이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만민에게 자신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공표하려는 것”¹⁹⁾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서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아밋대의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욥 1:1-2)고 말씀하시며, 이방 족속인 앗수르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집단 개종’²⁰⁾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얻어냈다.

하나님의 시각은 결코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17) 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개역성경을 따른다.

18)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51.

19) Ibid., 48-49.

20) 이 단어는 이광순, 이용원의 *선교학개론*, 56에서 표현된 용어이다.

만 아니라 열국을 보고 계셨고,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이 창궐했을 때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²¹⁾ 이러한 복음증거의 책임은 구약성서에서 자주 눈에 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고 말씀하시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야에게 임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열방과 열왕이 그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다(사 60:1-3).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세상에 치유되어야 할 대상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자신이 치유와 전도의 사명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²²⁾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사 61:1-3).

구약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하는 심경을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1)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만을 전하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명백한 증거이다.

22)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눅 4:17-19)이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전도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도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세계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전도를 생활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이다.

3. 신약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필요성

가. 예수님의 전도사역과 전도명령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전도자는 있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전도사역에 대하여 성경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막 1:4-5)고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의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가 시작이며 중심이 되고 모든 전도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역사를 다 이루시고 자신이 복음의 주체이시며 복음 전도의 명령자이시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훈련시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²³⁾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하셨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 1:17)고 하시며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또한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김기동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통해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다.

전도의 주권은 100퍼센트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되게 하리라”는 것은

23) 김형천, *효과적인 복음전도*, 25.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결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²⁴⁾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은 병고침의 사역과 병행되었는데,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전도하시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²⁵⁾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다는 것이고, 또 분명히 전도하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하여 빌 하이벨스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염력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 그것을 비종잇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하고도 강압적으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하여 마침내는 온 세상에 변화된 삶이라는 전염병이 만연케 하기 위해 예수님이 몸소 강력하게 모범을 보이셨던 하나님의 첫째가는 계획이다.²⁶⁾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의도는 병자와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²⁷⁾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임을 말한다(요 6:37-40).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전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 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심을

24) 김기동, *교구마 전도왕* (서울: 규장, 2001), 128-129.

25)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밧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고 하는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한 것을 밝혀주고 있다.

26) Bill Hybels and Mark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한기웅 역 (서울: 두란노, 1999), 19.

27) 예수님께서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2-13)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의 결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막 6:7-13).

또한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파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달리 칠십 명을 세우고 둘씩 각동 각처로 보내시며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하여 당부하신다. 그들을 향한 마음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며 재정적 준비의 불필요를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경우 “이 집이 평안할지 어다”라고 하면서 먼저 평안을 축복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셨다. 어느 동네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 때 그 곳에 있는 병자들도 고쳐 주라고 하셨다. 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 때 영접하지 않으면 돌아설 것을 당부하셨다(눅 10:1-12).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하여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마 9:35-38)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찾은바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눅 15:3-10).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역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당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약속을 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
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
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5-18).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이들 두 복음서는 표현과 강조점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전도에 있음이 공통적이다. 그것도 어느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모든 족속’ 또는 ‘만민’이라고 번역되었을 뿐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임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나. 사도들의 전도 사역과 전도명령

(1) 사도들의 전도 사역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드렸을 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7-8)는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대로 기도하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한다. 초기에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었다.²⁸⁾

28)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복음전도는 지체장애자를 일으키는 치유사역과 병행되면서 더 힘을 얻게 되는데(행 3장) 이 때에도 역시 그들의 전도 내용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며,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것에 대한 권고로 이어지고 있다(행 3:18-26).

이러한 사도들의 전도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제사장들과 성전 말은 자와 서기관들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행 4:1-2). 그로 인해 사도들은 잡혀 들어가 심문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지만 거기서도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행 5:12-16).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어지면서 결국 초대교회의 집사였던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지게 된 교회는 결국 흩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그곳에서 치유와 전도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행 8:1-8).

이러한 사도들의 전도는 예수님과 교회를 거세게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면서 한층 더 힘을 얻게 된다. 그는 예수를 그리

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2-36)고 전하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밝혀주고 있다.

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행 9:22),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행 9:28-29). 이런 식으로 진행된 이방인을 향한 전도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행 11:19-21).

한편,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들은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를 거쳐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증거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 때 바울의 복음 증거 내용 역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구타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바울은 항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으로 굳게 믿었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총만케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셨던 것이다.²⁹⁾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도하는 사역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겼으며 그 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였고, 그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사역에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도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남긴 서신 속에서도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게 해 준다.

(2) 사도들의 전도 명령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증거하기를 주저하기 보다는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29) 김형천, *효과적인 복음전도*, 33.

루어지게 하옵소서”(행 4:29-30)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행 4:31).

이러한 열정을 지녔던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의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3-15).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엡 6:18-20).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빌 1:15-18).³⁰⁾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순간에 남긴 편지에서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잘 감당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³¹⁾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이 사도들은 스스로 전도사역에 열심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30)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311.

31)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당부한다.

32)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면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을 향해서도 그들이 열심히 전도의 사역을 담당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은 전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요, 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제 2 절 전도훈련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전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도 자명해진다. 여기서는 전도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 수행과 교회의 건강 그리고 개인의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하나님의 명령 수행

모든 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29-31).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김영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신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길을 잃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서 자발적이며 자연적으로 흘러

나오는 사랑에서 기인해야 한다.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선행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소중한 구원의 기쁨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³³⁾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된다. 그 명령의 소중함에 대하여 스카보로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Lost Souls)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것이며, 인간도 이 일을 위해 더 많은 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는 한 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히 11:3).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셨다(사 53:10).³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헌신함으로써 표현되는 것이다.³⁵⁾ 맥가브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되어야만 한다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다.³⁶⁾ 우리가 크리스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게 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격을 갖추게 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직분을 다하게 될 것이다.³⁷⁾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 대하여 스카보로우는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

33) 김영욱, *21세기 전도전략*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30.

34) L. R.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With Christ After the Lost)*, 이명희 역 (서울: 보이스사, 1986), 19.

35) Ibid., 21.

36)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21.

37) Hybels and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19.

리의 여정에 결코 휴가를 주신 일이 없다. 학식이 없건, 가난하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건,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명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이 사명의 완수를 회피할 수는 없다.³⁸⁾ 우리 모두는 전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2. 교회의 건강과 성장

김연택은 “전도는 교회의 생명”³⁹⁾이라고 표현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고 교회의 일원이 되며 교회는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은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스왈드 스미스가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전도가 죽었기 때문”⁴⁰⁾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구도자 예배를 통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썼던 교회로 잘 알려진 윌로우크릭 교회에 대하여 라일 살러는 그 교회가 전도를 우선순위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성장하였음을 강조한다.

외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크기, 넘치는 에너지, 사역자, 탁월성에 대한 고집, 대중예배를 드리는 방법 등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교회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⁴¹⁾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이고, 교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하워드 스나이더 역시 만약에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영적인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한다.

38)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20.

39)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256.

40) Oswald J. Smith, *구원의 열정(The Passion For Souls)*,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85-86.

41) Lyle Schaller, *Innovation in Ministry* (Nashville, Abingdon, 1994), 49-50.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교회라면 복음전도가 언제나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장에 대한 관심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되(엡 1:10),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주되심 아래 각 사람의 의지와 삶을 전부 복종시키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교회는 공식적인 선포와 설득 위주의 복음 전도는 물론, 개인적인 복음 전도를 실시해야 하며, 그리고 새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명령이다. 성경에 충실함은 곧 복음 전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전도에 대한 열심과 영원에 대한 경이감을 상실한 교회는 한 세대만 지나면 영적인 불구자가 되고 만다.⁴²⁾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의 건강의 표지가 된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성장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이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성장하기 마련이다.⁴³⁾ 김연택은 “전도는 교회의 양적 성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질적 성장도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교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성숙과 함께 성장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받게 된다”⁴⁴⁾고 하였다.

전도의 분위기가 성숙해 있는 교회야말로 영적인 진리가 견고하게 다져진 교회이다. 영적인 생활에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진리는 전도하는 교회에서 강하게 형성되어진다. 그와 같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들의 임무를 잘 감당한다.⁴⁵⁾ 복음 전도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없고, 따라서 교회의 복음 전도의 열매는 교회의 영적 활력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다.⁴⁶⁾ 결국 전도는 교회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

42) Howard A.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Liberating the Church)*, 권영석 역 (서울: IVP, 2006), 214-215.

43)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49-50.

44)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256.

45)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118.

46) Snyder, *참으로 해방된 교회*, 218.

3. 개인의 영적 성장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것이다.⁴⁷⁾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리로이 아임스는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흐르는 것”⁴⁸⁾이라고 하였다. 생명이 상실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성장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열매 없는 성장은 가치 없는 삶을 산 것이라는 것을 스카보로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불신자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보답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가치 없는 삶을 산 것이고 면류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⁴⁹⁾

이와 같이 전도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준다. 전도의 중요성은 전도대상자의 변화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질적 성숙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연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도는 교회의 양적 성장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질적 성장도 가져온다. 이것은 외부 내향적 원리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받게 된다.⁵⁰⁾

이와 같이 전도는 외부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

47)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19-20.

48) LeRoy Eims,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What Every Christian Should Know About Growing*),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2000), 139.

49)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25.

50)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256.

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도에 참여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시켜 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전도활동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결과에 대하여 리브스와 젠슨도 동일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둘째로 전도하게 되면 자연히 성경을 많이 보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뜻을 찾게 된다. 셋째로 전도하게 되면 주님의 사신으로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성장에서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을 구분하지 않는다.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란 재생산, 양육, 성장 그리고 재생산하는 것처럼 교회도 이와 같은 생명의 재생산의 회전을 계속하며 성장하게 된다.⁵¹⁾

위와 같은 여건으로 인해 소망교회의 전도에 있어서 그 방향은 현재 소망교회에 등록하여 출석을 하고 있는 교인의 내적인 성숙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따라서 훈련의 내용도 전도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야 하고, 전도를 하기 원하는 기존 교인들을 어떻게 잘 훈련시켜서 전도를 위해 헌신케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는 일차적으로 전도자의 신분을 노출해야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전도자의 신분은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회적 배경을 말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으나, 전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은 그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고, 그중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이러한 노출이 진행될 때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에게 자신의 성결함과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윤리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자체가 전도자의 부담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전도자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전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의 유익에 대하여 빌하이벨스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건한 크리스천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즉각적이고도 본능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생활

51) Daniel Reeves and Ronald Jenson, *Always Advancing: Modern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San Bernadino: Here's Life Publishers, 1984), 30.

을 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결점을 잡아내려는 마음으로 주시한다. 두 가지 모두 책임을 다하는 아주 인상적인 인품을 갖게 한다. 믿지 않는 친구들은 실제로 당신이 더욱 경건한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 개인적인 이익에 또 하나 추가되는 굉장한 보너스다!⁵²⁾

이처럼 전도는 전도하는 자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더욱 넓은 이해와 영적인 식견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한다. 전도는 전도자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확신하게 해준다. 전도는 전도자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을 영원한 목적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누게 해 주기도 한다.⁵³⁾ 하늘나라의 지극히 높으신 분과 이 땅의 가장 미천한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속에서 동역하는 것⁵⁴⁾이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52) Hybels and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45.

53)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27-28.

54) Ibid., 19.

제 3 장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준비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한 전도자가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준비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고난만 있고, 보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카보로우는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도자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희생이 뒤따라야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때로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며,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 채워지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봉사자의 삶인 것이다.⁵⁵⁾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전도자에게는 몇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는 전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서 그 방법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도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도의 방법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함께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전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도자는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요구되는 항목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바르게 잘 전하기 위해 준비된 영혼이어야 한다. 그리고 전도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적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도자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영적

55)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26.

인 준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생활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제 1 절 전도의 방법에 대한 신학적 이해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훈련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은 전도의 방법이 지니는 신학의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본 절에서는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는 전도의 방법을 논하고자 한다. 삼위일체적 관점이라 함은 성부되신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복음의 전달 방식에 대한 이해이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복음의 전파에 대한 방법과 성령님의 관점에서 어떠한 전도의 방식이 이해되어야 하는가를 논하게 된다.

폴 스티븐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범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적 접근이 필수적”⁵⁶⁾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알려주고 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엡 1:4-5).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엡 1:7).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역사이다. 그러므로 전도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그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루이스 드루몬드의 주장처럼 오늘날 만약 교회가 효과있는 복음전도를 하자면, 그것은 굳건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⁵⁷⁾

56)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6), 248.

57) Lewis A. Drummond, *현대전도학 서설 (Leading Your Church in Evangelism)*, 변은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48.

1. 성부 하나님과 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인간이 그분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일에 대하여 자격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⁵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요 1:12-14).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는 일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은 말한다(요일 1:7-8). 그러니까 결국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부하셨다. 론 켄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찾는 일과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찾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일-영혼을 찾는 일에 그와 동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효과적으로 개인전도를 맹렬하게 대적하여 나설 것입니다.⁵⁹⁾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자명해진다. 전도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는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58) Drummond, *현대전도학 서설*, 56.

59) Lorne C. Sanny, *개인전도의 방법 (The Art of Personal Witnessing)*,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7), 10.

우리는 모든 동기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 가운데 그리고 그가 자신을 계시하셨던 구원 사역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적이라고 확언할 때 우리는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이시며,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었다.⁶⁰⁾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전도의 방법은 자연히 ‘케리그마’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사랑의 사역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교리 중심적인 내용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신론과 함께 복음이 전개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도 방법은 이 교리적 흐름에 따라 설명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사영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먼저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영리 전도는 신론, 인간론과 죄론,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전도 폭발 훈련에서 제공되는 복음제시 방법 역시 유사한 교리적 흐름을 따른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이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규명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다분히 신학적 기초 위에서 교리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사영리와 마찬가지로 신론이 제시되고 인간론과 죄론이 다루어진다. 그리고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기초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결국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교리적 설명에 기초한 복음 제시라고 할 수 있다.

60) John Stott,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한화릉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8), 22.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해하여야 할 하나님의 전도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전도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에 대하여 찰스 크래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커뮤니케이션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예를 들어, 꿈, 천사, 불타는 숲).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간들에게 접근하는데 인간들을 통한 역사를 더 선호하신 것 같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나타내셨을 때, 그 방법은 곧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성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히 1:2).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자라고 부르시는 분이셨다.⁶¹⁾

따라서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전달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전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그 외의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⁶²⁾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2. 성자 예수님과 전도

예수님의 복음 증거 방식은 선포로 드러난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선포를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로 시작된 예수님의 선포는 자신에 대한 증거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예수님은 언제나 스스로에 대하여 만민에게

61) C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22.

62) 이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학교 개인전도 훈련교재에서는 ‘큰 구원’과 ‘작은 구원’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큰 구원’은 에베소서 1장 3-1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말한다. 그러나 ‘작은 구원’은 육신적 혜택, 물질적 혜택, 이적과 기사로 인한 증거 등을 말한다. 병 고침을 받은 것, 물질적 복을 받은 것, 사업이 잘 된 것 등은 작은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작은 구원보다 큰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도적 커뮤니케이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큰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84.

선포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오도록 요청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 방식은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사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로 이어지게 되었다. 조셉 알드리치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힘있게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 세워졌다. 그들은 길거리에서나 회당 또는 시장에서 설교하였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인 것은 명백한 사실”⁶³⁾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복음증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선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선포이다. 따라서 전도는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는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선포는 듣는 자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 전도 역시 듣는 자의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전도를 하면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⁶⁴⁾ 그러나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선포 이후의 결과는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도가 선포로 이해되어질 때 전도를 결심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전도의 열매로 결신이 이루어지는 일은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결신 위주의 전도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은 전도자에게나 전도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신을 유도하는 일이 전도 대상자에게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하여 토저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을, 특히 젊은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킬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만다. 왜냐하면 결신자 실적을 올리려는 열망에 압도된 우리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랴부랴 결신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재촉에 못 이긴 그들은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결신서에 서명을 하고 만다.

63) Joseph C. Aldrich, *생활 전도 (Life-Style Evangelism)*, 오정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105.

64) Ford,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28.

결신자를 만들려는 열망은 좋은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된 일들을 많은 경우에 열매를 맺기 힘들다. 전도 집회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일어서세요”라는 말을 듣고 일어서지만, 사실 자기들이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전도 집회를 떠난다.⁶⁵⁾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드러지는 또 한 가지 전도의 특징은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존 스토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의 공적 사역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셨으며, 또 이어서 그는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두 가지 선교 가운데 그의 죽음과 부활이 놓여 있다.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또 주가 되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높임을 받으셨다. 교회의 보편적 선교는 그리스도의 보편적 권위로부터 유래한다.⁶⁶⁾

그리고 제자들은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전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⁶⁷⁾ 고난 받는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는데, 이 때 사역의 위임은 일회적이지 않다. 마태복음은 10장에서 제자들의 파송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존 피터스는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준수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행하는 것을 꺼리면서 우리는 위대한 사명을 적당히 희석해 대충 받아들여왔다”⁶⁸⁾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시는 목적에 불충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부르신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파

65) Aiden W. Tozer, *세상과 충돌하라 (Tozer Speaks to Students)*,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5), 231-232.

66) Stott,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22.

67)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많은 설교의 주제는 ‘천국’과 관련된 것이 많다.

68) John Peters,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세상 속의 전도자 (The Evangelist's notebook)*, 이혜림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82.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장소적 제한이 없으며, 대상의 구분도 따르지 않는다.⁶⁹⁾ 오직 보내신 분의 말씀에 충실한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전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전도의 중요한 방식은 역시 증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자신이 그 증명의 증거인 셈이다. 이에 대하여 찰스 크래프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사랑을 증명하셨다. 예수께서는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증명하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용서를 증명하셨고, 또한 사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도 보여주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탄,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적들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도 보여주셨다. 그리고 끈기, 인내, 유혹을 이기는 힘, 온유, 거룩, 기도하는 법, 섬기는 법,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배울 필요가 있는 다른 모든 특성들도 증명해 보여주셨다. 또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삶과 말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도 증명해 보여주셨다.⁷⁰⁾

그러므로 전도는 먼저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보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보내야 한다. 이 때 보냄받은 성도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증명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커뮤니케이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관심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자들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69)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을 종합해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다.

70) C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51-52.

3. 성령과 전도

복음 전도의 위대한 진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달된다. 성령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출발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담당하신다.⁷¹⁾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 24:49)고 당부하셨다. 성령의 능력을 복음전도와 연결시킨 것이다.⁷²⁾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체험하며, 큰 핍박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을 가졌다. 이는 성령이 자유롭게 초대 교회에 역사할 때 일어났던 사건들의 일부이다. 성령께서 영적인 생명을 불어주시지 않는다면, 곧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강력한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⁷³⁾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교적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은 선교적 사건이었다. 그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백성에게 증거를 위한 권능을 주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⁷⁴⁾ 데이빗 웰즈의 주장처럼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⁷⁵⁾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전도 사역을 보다 능력있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점에 대하여 토레이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해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능력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⁷⁶⁾

71) Howard Clark Kee, *Good News to the Ends of the Earth* (London: SCM Press, 1990), 30.

72) 김영욱, *21세기 전도전략*, 32.

73) Ibid., 33.

74) Stott,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22.

75) David F. Wells, *God the Evangelist* (Grand Rapids: Eerdmans, 1987), 93.

76) Reuben A. Torrey, *How to Obtain Fullness of Power* (London: Lakeland Paperbacks,

이처럼 전도를 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며, 전도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⁷⁷⁾ 드루몬드의 주장처럼 성령은 전도의 모든 주도권을 행사하신다.

우리는 성령과의 원활한 관계없이 어느 누구라도 사역에 있거나 삶에 있어서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다. 성령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선교사업에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가 선교에의 열망을 갖도록 고무시키는 분도 성령이시다.⁷⁸⁾

성령은 이처럼 전도자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변화를 일으키신다.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⁷⁹⁾ 존 피터스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⁸⁰⁾ 왜냐하면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칼빈 라츠의 주장대로 성령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도 성령의 위치를 대신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주권적 이시고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활동하신다. 하지만 우리들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을 위한 공간을 이해하고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전도를 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없이는 무감각한 교회를 일으키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⁸¹⁾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전도는 결국 전도는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라고

1955), 31.

77) 김영욱, *21세기 전도전략*, 35.

78) Drummond, *현대전도학 서설*, 210.

79) Sanny, *개인전도의 방법*, 49.

80) Peters,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세상 속의 전도자*, 145.

81) Ratz, Tillapaugh, and Augsburg, *선교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101.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존 스토틀의 다음과 같은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교에 대한 이 삼위일체적 기초는 제 일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선교적 마음이다. 그가 그의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기를 열망하신다면, 그의 백성인 우리도 그의 열망을 공유해야만 한다.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은 불가피하며, 또 세계 선교에 대한 무관심은 용서받을 수 없다.⁸²⁾

이 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논증을 펴는 사람은 폴 스티븐스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전체를 삼위일체적 사역 신학에서 정립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요 17장)는 성삼위일체의 모든 자원과 더불어 삼위일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가정’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⁸³⁾고 한다. 이것은 봉사란 삼위 하나님 상호간의 사랑의 삶이 성령의 능력 주시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온 백성을 통해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삼위일체적 사역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다.⁸⁴⁾ 이러한 관점 하에서 그는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선교는 창조 세계, 보살핌, 구속, 최종적 완성과 관련된, 하나님으로부터 세계로의 움직임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그분이 ‘보냄받은’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다. 성부가 성자를,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실 뿐 아니라, 성령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선교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보내심인 것이다.⁸⁵⁾

결국 전도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창조하신 인류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위하여 삼위는 일체로 동역하시고, 그 동역하심 가운데 인간을 부르시고 세우신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바로 전도이다.

82) Stott,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22-23.

83)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173.

84) Ibid., 176.

85) Ibid., 236.

제 2 절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필요조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도자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왕이면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달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은 아니다. 전도자 개인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기서는 전도의 생활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 사도바울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8)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참된 복음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⁸⁶⁾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교훈하고 있다(벧전 3:15). 사람들은 확신있는 신앙을 원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복음의 내용에 변증할 수 있어야 한다.⁸⁷⁾

또한 전도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전달은 듣는 자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머레이 다우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86) Peters,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세상속의 전도자*, 35.

87)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299.

서 자신을 죄의 처벌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그가 날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지고(구원받고) 있으며 마침내 죄가 자리잡고 있는 곳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⁸⁸⁾

전도자의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아는 깊은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회개의 심령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주님으로 모셔 들였어야만 한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한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한다.⁸⁹⁾

2. 다양한 방법의 연습

제람 바즈는 “바울이 전도를 하기 전에 예상되는 반응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갔다”⁹⁰⁾고 한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대상을 사랑하고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있는가를 이해하고 갔다. 이것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전도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는 배워야 한다. 전도가 배워야 할 기술임에 대하여 론 쎄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을지 모릅니다. 또 겁을 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룹이나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다른 일과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즉 그것도 배워야 할 기술이며,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하게 보이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사업에 적대적이기까지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덧붙여서, 복음의 내용을 간략하고 힘 있게 전하는 방법과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을 돌보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⁹¹⁾

그래서 전도는 배워야 하는데, 기왕이면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왜냐

88) Murray W. Downey, *개인전도 핸드북 (The Art of Soul Winning)*,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39.

89)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35.

90) Jerram Barrs, *현대문화속의 전도*,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74.

91) Sanny, *개인전도의 방법*, 10-11.

하면 전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전도 대상자나 전도의 상황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경험하게 되는 전도의 상황과 전도의 대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양한 방법을 숙지하면 할수록 전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방법만을 습득하는 것이 전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빌 하이벨스는 어른이 된 후에 꽤 많은 전도의 열풍을 목격했다고 한다. 소책자 시대, 텔레비전 전도 시대, 버스 전도 시대, 전도 대상으로 따지면 직장인 전도, 여성 전도, 남성 전도, 부자 전도, 빈민층 전도, 주부 전도, 영화 스타 전도 등등을 언급한다. 그는 적잖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점에서 이런 방법 하나하나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몇몇 열풍들은 오래가기를 바랐던 적이 있지만, 모두 하루살이처럼 금방 왔다가 떠나간다고 지적하기도 한다.⁹²⁾

이러한 빌 하이벨스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전도의 방법과 훈련의 내용들이 있다. 그중의 몇 가지에 대하여서는 후에 다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또 하나의 전도 훈련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훈련은 새로운 방법의 제시가 아니라, 기존의 훈련들 중에서 본 연구자의 연구 대상인 소망교회에 적용이 가능하거나 용이한 것으로 세 가지를 선별하여 훈련생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훈련생들이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만약에 전도를 훈련받는 사람이 한 가지의 훈련만을 받아서 전도에 임할 경우 그 훈련된 내용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훈련이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한가지의 내용만으로 훈련이 된다면, 위에서 빌 하이벨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것을 적용할 수 없을 때 그 훈련 방법은 지나가버리는 열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빌 하이벨스의 주장처럼 방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다.

92) Bill Hybels,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 정성목 역 (서울: 두란노, 2006), 41.

앞으로 몇 십 년간 '새롭고 탁월한' 전도법이 계속해서 나타날 게 뻔하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사람을 믿음 안으로 이끌어 오기만 한다면 굳이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거친 세파를 이겨 낼 수 있는 패러다임은 오직 하나뿐이다. 성령님께 파장을 맞추고 협력하는 게 전도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확신이 요즘 들어 더욱 강해진다. 성령님께 귀를 쫓긋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전도법이라도 바람 앞의 등잔불처럼 언제 그 열정이 꺼질지 모른다.⁹³⁾

그의 주장대로 우리에게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수많은 방법들과 함께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

3. 영적 준비

전도를 하기 위하여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전도의 방법에 대하여 훈련된 전도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일이 중요한 것을 위에서 언급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공적인 전도자의 삶과 직결되는데, 이것이 곧 전도를 생활화하는 전도자의 영적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전도자가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맥가브란은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한다고 하였다.⁹⁴⁾ 그러므로 전도의 열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영혼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려는 사람은 정결한 심령과 깨끗한 손의 소유자라야 한다.⁹⁵⁾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엄호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93) Hybels,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41-42.

94)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124.

95)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36.

올바르게 확립해야 한다”⁹⁶⁾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저서인 *모유전도법*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 가지로 정의한다. 첫째는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피조물로서 지음 받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롭다 하심의 관계인데 여기에 복음의 중심이 있다고 보았다. 셋째는 복음에 빛진 자의 관계라 하였는데 이 때 빛진 자는 죄와 은혜와 사명에 빛진 자라고 하였다.⁹⁷⁾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효과적인 복음전도 사업에서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의 생활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쳐질 때에만, 하나님은 그 생활을 전도 사업에서 유용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 재능이 한 가지건 열 가지건 간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복음전도에서 도구가 되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의 원칙들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⁹⁸⁾

드루몬드의 주장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그분의 부르심과 요구에 적극적이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카보로우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확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⁹⁹⁾

전도를 전투의 개념으로 보고, 영적 전쟁에서의 전략적 승리를 주장한 제임스 윌슨은 주님과 그의 관계를 전쟁에 있어서 ‘협조’의 개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96) 엄호섭, *모유전도법* (서울: 국민일보사, 2002), 62.

97) Ibid., 62-67.

98) Drummond, *현대전도학 서설*, 189.

99)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38.

그러므로 해결의 길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단체에서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 홀로 있건 함께 있건 이런 시간에는 구별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남을 비난하거나 자기비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와 더불어 기도와 찬양, 예배, 성경읽기, 공부 그리고 묵상하는 일로써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이야기 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욱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될 것이며 그의 명령과 목적을 더 온전하게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다.¹⁰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전도자는 전투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전도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이 관계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

나. 기도의 생활화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론 켈니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전도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필요한 것은 첫째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서 성공적으로 영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주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심령들을 알게 하십니다.¹⁰¹⁾

따라서 성공적인 전도자의 본질적인 조건 중의 하나는 기도생활의 개발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이며, 가장 큰 기회고, 가장 본질적인 책임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문을 열어 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

100) James I. Wilson, *전도전략원리 (The Principles of War)*,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70.

101) Sanny, *개인전도의 방법*, 50.

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¹⁰²⁾

관계는 중요하다. 특히 전도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도자의 능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 관계는 대화를 통해 발전한다. 윌리엄 맥케이의 말처럼 대화가 막히게 될 때 관계는 고통스러워진다.¹⁰³⁾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본계의 주장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기도는 부모와 자녀들간의 대화만큼이나 필요한 것이다.”¹⁰⁴⁾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이러한 개인적인 유익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생활화가 가져오는 유익은 그 자체가 전도의 능력을 가증시키기 때문이다. 맥케이는 말한다.

기도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우리를 도와준다. 돌봄 전도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게 된다. 기도의 생활이 없이 그리고 기도의 도움으로 개발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거의 없게 된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것이 더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도록 하신다.¹⁰⁵⁾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실제 생활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아무리 좋은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생활을 영위하지 않으면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없다. 전도훈련은 전도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전도자는 훌륭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102)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43.

103) William J. McKay, *가정전도이야기 (Me, an Evangelist?)*,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8), 250.

104) Reinhard Bonnke,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 (Evangelism by Fire)*, 서울서적 편집부 역 (서울: 서울서적, 1994), 358.

105) McKay, *가정전도이야기*, 250.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⁶⁾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생활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엄호섭은 전도하는 생활을 위해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¹⁰⁷⁾ 더 나아가 김상복은 전도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전도대상자의 영혼을 향한 직접적인 기도가 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전도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생명)으로 옮겨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마귀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 오랜 시간 꾸준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점점 사랑하게 되어 결국은 그 사람을 자기 가슴 속에 잉태하게 됩니다. 가슴 속에 잉태된 그 영혼은 언젠가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¹⁰⁸⁾

이처럼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구체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된다. 그래서 전도자는 적절한 사람에게 인도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또한 전도자는 꼭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전도자는 전도를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¹⁰⁹⁾

106) James I. Packer,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이장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10.

107) 엄호섭, *모유전도법*, 74.

108) 김상복, *당신은 확실히 전도하십니까* (서울: 나침반, 2000), 48.

109) William Evans, *개인전도학 (Personal Soul-Winning)*, 윤무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29-30.

다. 사랑의 나눔

전도자에게 있어서 꼭 지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전도하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적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역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우시던 그 눈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던(마 9:36)” 예수님의 사랑 많으신 심정을 알아야 한다.¹¹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전도 동기 역시 사랑이었다. 레이튼 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대 교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누군가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마음 속에 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전도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굶주리고, 외롭고, 슬프고, 목적이 없으며, 잃어버린바 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여 전도하게 될 것이다.¹¹¹⁾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셨던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다. 특히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에 있어서 제자들이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한 동기가 사랑이었음을 마이클 그린은 다음과 같이 변증한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 그리고 전도자와 대사로서의 사역이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며 성령으로 힘입은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은 초대교회의 복음

110)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40.

111) Ford,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42-43.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구체화되었고, 믿을 수 없는 갈보리의 고뇌의 깊이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러한 사랑에 사로잡힘으로써 그것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의 입술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¹²⁾

그러므로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카보로우는 “동정심이 없는 기독교는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고 만다”¹¹³⁾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금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대상자가 변할 수 있음에 대하여 빌 하이벨스는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였을 때, 구도자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여 모든 자비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유순해지는 모습을 보았다.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고 싶은 마음 더욱 더 간절해진다.¹¹⁴⁾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사랑의 동기를 지닌 전도는 전도 대상자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통해 전도하는 자의 영혼에까지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전도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이다. 영혼의 변화에 대한 경험은 지속적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게 할 것이며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게 할 것이다.¹¹⁵⁾

112)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444-445.

113)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66.

114) Hybels and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102.

115) Scarborough, *전도학 개론*, 41.

제 4 장

기존의 전도훈련 분석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전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전도훈련을 어떻게 구성하고 실시할 것인가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각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전도훈련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색다른 전도훈련 과정을 창조하기에 앞서서 기존의 전도훈련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도학교를 구성한다면 보다 이상적인 전도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몇 가지의 전도훈련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창설한 전도폭발 전도훈련, 그리고 CCC로 잘 알려진 대학생선교회의 4영리 전도법, 그리고 본 연구자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전도 훈련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전도를 생활화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계 중심 전도, 소그룹 전도, 고구마 전도법 등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전도 폭발 훈련

전도 폭발 전도훈련은 현재 한국에서는 '전도폭발 한국 본부'에서 주관하여 실시되는 전도 훈련이다. 이 훈련은 국제 전도폭발 본부의 총재인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 목사가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1967년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코럴릿지 장로교회(Coral Ridge Presbyterian Church)에서 시작하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의 특징과 내용,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훈련의 특징

가. 훈련의 개요

전도폭발 훈련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전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증가율을 능가하는 평신도 전도자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모집하여 무장시키고 배가시켜야 한다는 취지 하에 16주간에 걸친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에 대하여 훈련의 창시자였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평신도 전도 훈련 프로그램은 우리 교회가 당면했던 특수한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누구나 쉽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언어와 문화권이 각기 다른 세계 각처의 대도시나 중소도시 혹은 빈민지구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사용해 왔다. 이 프로그램이 전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가능성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이 전도에 관한 신약성경의 원리 몇 가지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¹¹⁶⁾

이 훈련을 통하여 교회의 공식적인 전도활동을 할 때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전도활동을 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데 훈련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 훈련에서 말하는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중 집회나 예배시의 강단설교를 통한 전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교회를 활동기지로 삼고 전개해 나가는 개인전도이다. 여기서 ‘폭발’이라는 용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50억을 넘어선 세계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배가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

나. 전도 폭발 복음 제시 내용

이 훈련에서 전도할 때 필요로 하는 복음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그것

116) D. James Kennedy, 전도폭발 (*Evangelism Explosion*), 김만풍 역 (서울: 한국전도폭발출판부, 1999), 21.

은 서론, 복음, 결신, 즉석 양육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은 5가지로 구분하여 전개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론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우리 교회, 간증, 그리고 주제 전환을 위한 질문과 함께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한다. 두 가지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당신이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 하고 계십니까?

질문 2. 만일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그가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영생)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 복음

(가) 은혜

천국(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롬 6:23).

천국(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엡 2:8-9).

주제 전환 :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 인간

인간은 죄인입니다(롬 3:23).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잠 14:12).

주제 전환 :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더 분명해집니다.

(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요일 4:8).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출 34:7).

주제 전환 :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요 1:1, 14:20:28).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영생)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제 전환: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 믿음

천국(영생)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구원(영생)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현세적 믿음입니다(마 8:29; 약 2:19).

구원(영생)을 얻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행 6:31).

(3) 결신

확인질 : 이해가 되십니까?

결신질문: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결신설명: 이것은 일생에 가장 중대한 결정이 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신뢰의 대상을 옮기십시오. 부활하여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계 3:20).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결신기도

구원의 확신

(4) 즉석 양육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환영

양육 소책자: 함께 성장해요

성장의 방편: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교회 예배 참석 약속

다. 훈련의 특성

전도폭발 훈련은 1단계가 16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훈련을 마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까지도 훈련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폭발 사역은 전도자로 훈련시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며, 훈련자로 무장시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훈련은 기본적으로 방문전도팀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전도팀은 훈련자 한 사람과 훈련생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된다. 훈련자의 임무는 개인적인 지도와 격려와 모범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훈련자는 개별적으로 훈련생의 숙제를 점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생이 복음제시 개요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 평가해 주는 일을 한다.

16주간 동안에는 매주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된다. 이때 전도폭발에서 정리한 복음제시 내용에 대하여 신학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강의 내용은 받아적도록 되어 있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강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의 방문 전도 현장에서와 같은 시범을 훈련자가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매주의 교실수업이 끝나면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함께 실제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처음에는 훈련자가 복음의 내용을 전하게 되지만, 점차로 훈련생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 매주 현장 실습을 하고 나서는 모든 전도폭발 팀원들이 함께 모여 방문전도에 대한 간단한 공개 보고회를 갖는다.

전도폭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숙제에 있다. 이 숙제는 매주 읽기와 암송하기,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준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분량의 암송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도폭발에서 사용하는 복음제시 내용을 전부 암송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16주간에 걸친 훈련을 시작하면서 훈련기간 동안 기도로 뒷받침해줄 기도후원자를 모집해서 매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다음 학기에 훈련생으로 모집할 만한 사람들을 기도후원자로 모집할 것을 권한다.

복음제시를 배우고 현장 실습을 통해 전도하는 법을 익히게 되면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권유하고, 발전과 찬양 보고서의 “일상생활의 생활화된 전도(훈련시간 밖에서)”항과 각 과의 숙제 보고서에 기록해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주간에 걸친 1단계 훈련기간에 중간 점검 시험(제9과)과 최종 점검시험(제16과)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숙제 보고서, 훈련생 모집 간증문, 신상명세서, 구두복음제시 녹음테이프와 평가표, 개인간증문, 최종 점검시험 답안지, 발전과 찬양 보고서, 학기 전도폭발 사역 평가서 등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다음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¹¹⁷⁾

이렇게 1단계가 끝나게 되면 2단계 과정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은 훈련자로서 첫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생들을 지도하는 법을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그리고 2단계를 수료한 훈련자들에게는 다시 3단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데 3단계 훈련은 훈련자가 소속된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을 도와주는 내용을 다룬다. 주요 주제는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제자훈련, 곤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변증), 복음과 인간의 필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도 등이다.¹¹⁸⁾

2. 장점과 단점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9개월이 지난 후에 캐나다의 어느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서 103명의 새 신자가 붙어났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감격하여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잠자는 거인인 평신도들을 깨워 동원시킬 수 있는 개인전도의 기술에 있어서 20세기에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입니다!”¹¹⁹⁾ 라고 했다. 리처드 씨슨도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쓰신 *전도폭발 (Evangelism Explosion)*이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감지하는 방법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 등의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¹²⁰⁾고 고백한다.

117)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편, *전도폭발 III 1단계 훈련교재* (서울: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1989), 7-9.

118) Ibid., 10.

119)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편, *전도폭발 III 지도자 임상교재* (서울: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1989), 1.

이 목회자들의 말처럼 전도폭발 훈련은 평신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훈련과 교재가 다듬어지면서 평신도를 전도자로 양육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훈련과정임에 틀림없다. 김상복은 전도폭발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훈련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를 만나서 얻게 된 유익을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다.

여름 동안의 수확을 안고 돌아온 그 가을 신학교에서 특강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의 한 도시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하고 있던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한 시간 동안 자신의 전도 사역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강의였지만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 분은 제가 여름 동안 배우고 실습해서 성과를 얻은 바로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는 그분이 유명해 지기 전이요 그분의 책도 훈련 교재도 프로그램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 그분의 전도 방법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 분은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코렐릿지 장로교회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입니다. 저는 이 전도 방법이 교재화되기 전부터 오늘까지 제 나름대로 사용해 왔는데 제 소신과 잘 맞아 지금껏 즐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¹²¹⁾

전도폭발 훈련이 이러한 장점을 보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16주간의 훈련을 통해 훈련생을 철저히 무장시키는 데에 있다. 교사와 훈련자의 철저한 돌봄과 격려 그리고 충실한 교재와 과제, 실습 등을 통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별도의 교재를 준비하지 않아도 할지라도 잘 정리되어 머리에 입력된 복음의 내용을 숙지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전도폭발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보고회에 있다. 어떤 보고들은 영감을 불러 일으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보고들은 좀 더 효과적인 전도에 도움이 될 통찰력을 얻게 해주는 교훈이 되기도 한다. 또 어떤 보고들은 기도제목을 제시하여 중

120) Richard Sisson, 전도자 훈련교본 (*Training for Evangelism*), 보이스사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2), 351-352.

121) 김상복, *당신은 확실히 전도하십니까*, 13.

보기도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¹²²⁾

이 외에도 전도폭발 훈련은 기도후원자를 세워 기도의 도움을 받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신속하게 적용해 나갈 수 있고, 주간에 감당해야 할 과제가 있으므로 훈련생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16주라고 하는 긴 훈련과정으로 인해 훈련생이나 훈련자가 훈련기간 동안의 피로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훈련 과정 중에 제시되는 과제에 대한 부담과 함께 총 40분 분량의 복음제시 내용에 대한 암기는 훈련생의 큰 어려움으로 늘 부각된다. 또한 전도폭발 훈련은 관계 중심적 전도로서 훈련의 실습을 위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전도대상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10회 이상의 실습을 위해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의 어려움들만 잘 극복이 된다면 전도폭발 훈련은 21세기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전도의 훈련이라고 할 것이다.

제 2 절 4영리 전도법

‘4영리’는 대학생선교회로 알려진 CCC에서 제작한 전도용 소책자이다. CCC는 1951년 빌 브라이트(William Bright)에 의해 처음 사역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58년에 김준곤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다.¹²³⁾ 이 단체는 전도하고 육성해서 파송까지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초의 전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4영리’라고 할 수 있다.

1. 훈련의 특징

가. 훈련의 개요

이 4영리는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약 10분 내외로 제시할 수 있도

122)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편, 전도폭발 III 1단계 훈련교재, 8.

123) 한국 대학생 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kccc.org/?Code=A00004&type=html>.

록 정리된 내용이므로, 그 자체가 전도훈련을 위한 중심교재로 활용이 된다. 또 4영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기 쉽고 간명하게 소개할 수 있는 책자이다. 물론, 이 책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책자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널리 사용되어 온 전도용 책자이다.¹²⁴⁾ 왜냐하면 이 책자 속에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전도법은 '4영리'에 대하여 살펴보셨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다음의 네 가지 단계의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훈련의 내용

(1) 제 1원리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요 3:16)

하나님의 계획(요 10:10)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2)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롬 3:23).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롬 6:23).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 3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4) CCC는 현재 197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4영리는 인터넷상에서 144개어로 번역되어 제공된다. 소책자로는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되어 국내에서도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롬 5:8).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고전 15:3-6).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요 14:6).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요 1:12).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엡 2:8-9).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¹²⁵⁾

다. 훈련의 특성

이 4영리 사용하는 전도 훈련은 CCC에서 LTC(Leadership Training Course) 훈련을 할 때 1단계 전도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이다. 또한 CCC의 산하 기관인 새생명훈련원에서 NLTC(New Life Training Course) 훈련을 할 때에도 역시 4영리를 사용한 전도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이 전도법은 4영리라고 하는 15페이지의 소책자를 가지고 그대로 소리 내어 읽어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절대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읽도록 한다. 4영리에 대하여 다 읽은 후에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결신

125) 한국대학생선교회 편, *4영리에 대하여 살펴보셨습니까?* (서울: 순출판사, 1999), 2-15.

을 유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4영리는 현재 국내에 다양한 종류가 출판되고 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4영리가 있어서 국내 교회들이 번역된 4영리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외 선교를 나갈 때 쉽게 지참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용이점이 있다. 설사 번역된 4영리가 출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터넷에서 144개국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각 교회가 나름대로 편집 제작 또는 출판하여 해외선교에 사용할 수도 있다. 또 국문 4영리의 경우에는 활자가 적은 것과 활자가 큰 것이 있으며, 만화로 된 4영리¹²⁶⁾도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4영리는 전도의 대상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도용 도구이다.

2. 장점과 단점

4영리는 CCC에서 인정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1) 간단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 2) “4영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한다.
- 3)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 4)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 5)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 6)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 7)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 8)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 9) 4영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¹²⁷⁾

이상과 같은 장점 이외에도 4영리는 무엇보다도 전도를 훈련하는 사람이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암송하고 있지 않아도

126) 만화 4영리도 칼라와 흑백이 구분되어 있고 크기도 2종류로 출판되고 있어서, 용도와 비용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27) 한국대학생선교회 교회훈련국, 전도: LTC 1 (서울: 순출판사, 2000), 31.

4영리만 소지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출판 되지 않은 국가의 언어도 인터넷에서 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언어의 4영리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만화로 구성된 4영리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4영리를 통한 전도를 용이하게 해 주고 있다.

또한 4영리라는 교재를 사용하는 전도는 전도자의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언어만을 사용하는 전도에 비해 전도 대상자의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이의 경우, 칼라 만화로 된 4영리를 통한 전도는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울러, 4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일정 기간 필요한 훈련을 받고 나면 누구라도 쉽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4영리를 통한 전도법이 가지는 단점도 있다. 그것은 전도자가 항상 이 책자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4영리 책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대상자를 만났을 때에는 쉽게 전도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도를 원하는 전도자는 반드시 4영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다. 4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4영리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따라서 4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는 사람은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별도로 공부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4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4영리를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4영리에 담긴 내용을 전도자가 미리 암송하고 있으면 4영리 전도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용이해 진다. 또한 4영리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예견될 수 있는 반대 질문들에 대하여 사전에 공부하고 숙지할 수 있으면 4영리를 진행하거나, 진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제 3 절 총회 전도학교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이하 '총회'라

함)에서는 2012년까지 1만 교회 400만 신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총회에서는 전도에 필요한 교재를 직접 개발하고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 있다. 여기서는 그 훈련의 특징과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전도의 생활화에 적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훈련의 특징

가. 훈련의 개요

총회에서 실시하는 전도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장기 전도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 전도훈련이다. 장기 전도훈련은 12주간에 걸쳐 매주 1회씩 일정 시간을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기 전도훈련은 장기 전도훈련에 매주 참석할 수 없는 교인이나 단기간에 전도를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집중해서 매일 일정시간을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에 필요한 강의내용과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목회자가 본 과정을 수료할 경우, 목회자가 소속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교재가 제공된다.

이 과정을 위하여 총회 전도부에서 2년간의 연구 끝에 구성된 교재의 주된 내용은 전도하는 법에 대하여 이론을 설명하고 실습을 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본 교재는 전도뿐 아니라, 성경공부, 교제, 봉사 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교재는 본 교단 총회의 신학과 전통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개인전도 훈련교재로써,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전도능력을 배가시키도록 하였다.¹²⁸⁾

나. 훈련의 내용

본 과정에서 전도를 위하여 제공되는 도구는 *하나님의 사랑이야기*라는 제목의 소책자이다. 이 책자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십니까?”로 시작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12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9-10.

창조주이십니다(창 1:1).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벧전 1:16).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요일 4:16).

둘째,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약 4:17).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롬 3:11-12).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롬 1:28).

셋째, 이러한 인간의 죄는 죽음을 가져오며,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시 5:4-5).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잠 20:9). 죄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엡 2:1).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딤후 2:5).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벧전 3:18).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딤후 1:10).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요 1:12).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눅 13:3).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고 복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요 5:24).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여섯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마음에 거하십니다(골 2:20).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골 1:14).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요 1:12).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갑니다(요 5:24).¹²⁹⁾

12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학교 편, *하나님의 사랑이야기*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

다. 훈련의 특성

본 과정은 단순히 전도자를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본 과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통하여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그 주된 목표를 둔다. 예를 들면, 3/4 이상의 출석을 해야 수료가 되도록 하여 결석과 지각을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이는 시간 지키는 훈련이다. 주간 숙제를 반드시 그 주간에 하도록 하여 책임감당 훈련을 한다. 암송 구절을 규칙대로 암송케 하여 성경 암송 훈련을 하고, 전도 숙제는 교재에서 지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여 전도실습 훈련을 한다. 이외에도 정규예배의 설교를 받아 적도록 하여 예배참석 훈련을 시키고, 경건의 일기를 셋째 주간부터 쓰도록 하여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킨다.¹³⁰⁾

교과 과정 역시 매 회마다 중요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가르치고, 주간공부 역시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체계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였다. 1교시의 교과과정으로는 경건의 일기 쓰기, 사도신경 연구, 반대의견 취급법, 네비우스 선교정책,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의 지상명령, 이단비판, 방문전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도를 위한 2교시의 교과과정은 나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도는 쉽지 않다, 전도는 실천해야 한다, 전도는 기도와 병행해야 한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전도는 큰 구원을 전해야 한다, 전도는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전도는 실습으로 익혀야 한다, 방문전도 실습, 전도된 자들은 잘 양육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¹⁾

2. 장점과 단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구성한 전도훈련과 이 훈련을 위한 교재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전도 훈련 과정이다. 어떤 교회이든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총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교육을 받은 지도자는 개 교회에서 전도자를 훈련시킬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교과와 구성이나 교재가 비교적 잘 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를 근간으로 하여 전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거의 다 망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서 기본

도학교, 1995), 1-15.

13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11.

131) Ibid., 14.

적인 영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내용도 함께 첨가되어 있어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으로도 손색이 없다.

훈련기간은 12주로 전도폭발 훈련보다는 짧은 편이다. 또 이 훈련조차도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단기간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사실 자체가 본 훈련이 생활 속에서 전도를 원하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전도를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전도의 당위성을 전달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또 전도에 필요한 성경구절들을 본 과정을 이수하면서 암송케 하는 것도 전도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도용 소책자인 '하나님의 사랑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전도대상자를 만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훈련의 과정 중에는 이 소책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¹³²⁾

하지만 이 소책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소책자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소책자를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소책자에 요약된 내용들을 전도자가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림들에 대한 설명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 전도자가 4영리와 마찬가지로 본 소책자를 항상 휴대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훈련과정 중에 암송된 성경말씀들을 잘 정리하여서, 불시에라도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복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단기 집중교육으로 5일을 연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도 요령에 대한 터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도자의 영성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기도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자리잡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전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는 장기 전도훈련은 바람직하게 여겨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자가 12주를 연속으로 참여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과정에서 3/4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한 교과과정에서 3회나 결석한 사람을 수료하게 해

1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174-181.

준다는 것은 훈련의 중요성을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총회 전도훈련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잘 보완되고 다듬어진다면 훌륭한 전도 훈련으로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전도자를 양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제 4 절 그 밖의 전도 훈련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고 체계 있는 훈련으로 잘 짜여진 전도훈련 3가지에 대하여 그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 외에도 수많은 전도 훈련과 전도 방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생활 전도와 관련하여 현재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관계 중심 전도, 소그룹 전도 방법 그리고 고구마 전도법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계 중심 전도

오랫동안 전도에 있어서 '회심'은 전도의 중요한 목표였다. 과거 50년 동안 미국 교회들은 '극적인 회심'에 초점을 맞춘 전도활동에 치중했다고 한다.¹³³⁾ 이러한 극적인 회심을 추구하는 전도활동에는 대중전도, 개인전도, 대중 매체를 통한 전도가 있다.

대중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대중집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촉구하거나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한다. 개인전도는 주로 방문전도의 형태로 진행되는 데 위에서 언급한 4영리 등의 전도용 소책자를 활용하여 전도를 하는 방식이다. 대중 매체를 통한 전도는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어 왔는데, 라디오와 TV에 이어 현재는 인터넷과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여 복음을 선포하거나 전달한 후에 결신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전도방법에 대하여 몇몇 전도신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회심이 단회적인 사건이란 측면에서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결정적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참된 믿음에 이른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에 맞는 전도 사역을 모색해

133) Richard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Paul & the Twelve)*, 김태곤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359.

야 한다는 이론이 대두되었다.¹³⁴⁾ 그중의 한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 ‘관계 중심 전도’이다. 맥가브란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오직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 때에만 선포될 수 있는데, 들으려고 하는 것은 관계를 가질 때 용이해지기 때문이다.¹³⁵⁾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하여 이론을 전개한 학자가 많고, 또 위에서 제시한 훈련 중 전도폭발 전도훈련이 관계 중심의 전도를 지향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관계 중심 전도로 잘 알려진 오스카 톰슨의 저서 *관계 중심 전도*를 근간으로 하여 본 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오스카 톰슨은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복음전도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목회자인데 그는 전도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일 당신이 물을 흘러넘치게 하기 위하여 한 우물만 깊이 파들어 간다면, 나는 당신의 관계들 중 어디엔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계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령은, 솟구치는 분수처럼, 위로, 밖으로, 자유자재로 흘러 넘쳐 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훈련은 우리가 그러한 관계들을 바르게 할 때에야 비로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¹³⁶⁾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관계란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말하지 않는다. 전도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다고 해서, 엉망이 된 인간관계 속에서 전도할 수 없음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전도를 함에 있어서 관계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한다.

관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영원히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은 외모, 연령, 모양, 크기, 색깔, 인종, 아름다움, 적의 또는 인격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134)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359.

135) Donald A. McGavran, *하나님의 선교전략 (The Bridges of God)*,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57.

136) Oscar W. Thompson, *관계 중심 전도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 주상지 역 (서울: 나침반, 1984), 28.

입니다.¹³⁷⁾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인의 관계도 중요해진다. 이상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교인들과 비교인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교인과 비교인의 관계 단절은 전도의 종말을 예고한다”¹³⁸⁾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의 올바른 유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아에 대한 이해이다.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한 후에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 제일 먼저 만나야 할 관계의 대상은 직계 가족이다.¹³⁹⁾ 그리고 친척을 넘어서 친한 친구와 이웃, 그리고 아는 사람들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여기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 후에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기도의 내용은 전도자 자신이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필요를 충족케 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깨뜨려진 관계들과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 극복되어진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에 대한 증보의 기도를 하고 사랑과 관심을 표하였다면 이제 다리를 놓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최선의 시기는, 전도 대상자들이 즐거워할 때 기뻐해주고, 환란의 때에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¹⁴⁰⁾ 이 점에 있어서 이상만은 전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7가지의 습관을 말하는 데, 그 중에서 이웃에게 열린 습관(개방성), 이웃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낙천적인 습관(낙천성), 이웃의 필요를 도우려는 적극적인 습관(적극성) 그리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지속적인 습관(지속성)¹⁴¹⁾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윌리엄 맥케이는 “때때로 전도를 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 우리 자신의 요구나 편안함, 자존심 그리고 계획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게 돌볼 수 있다”¹⁴²⁾고 한다.

137) Thompson, *관계 중심 전도*, 30.

138)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79.

139) 김영욱은 “관계전도의 우선대상은 가족이다.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고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전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김영욱, *21세기 전도전략*, 41.

140) Thompson, *관계 중심 전도*, 141.

141)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144-148.

142) McKay, *가정전도이야기*, 100.

이때 기쁨의 시기로는 아기 출생, 결혼, 생일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축하를 통해 보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반면 고통의 기간에는 질병, 경제적 파탄, 실직, 결혼의 위기, 자녀들과의 갈등 등에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 환란의 때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¹⁴³⁾ 이러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톰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 사이에 환경을 공작하시어서, 당신이 사랑의 통로가 되며, 동시에 그의 필요를 충족케 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문제와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¹⁴⁴⁾

현대 사회가 변화되면서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관계의 단절이다. 인터넷과 휴대 전화 등 통신 매체의 발달은 관계의 증진을 가져오기 보다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 그래서 하이터치가 필요한 하이 테크닉 시대가 되었다.¹⁴⁵⁾ 이 시대에 인간은 행복해지기 보다는 더 많은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가 되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상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사야 61장 1~3절은 메시아를 모든 슬픈 사람의 위로자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입을 입고 오신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위로가 된다. 그 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소외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섬기셨다. 주님처럼 자신이 먼저 한 일의 썩어지는 밀알(요 12:24)이 될 수 있는 자만이 현대인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¹⁴⁶⁾

그러나 관계가 설정된 것만으로 복음 증거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톰슨은 잘 조성된 관계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직면할 것을 당부한다. 이때 사람들을 위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사랑하며 전할 것을 거듭 부탁한다.

143) Thompson, *관계 중심 전도*, 150-151.

144) Ibid., 158.

145) 윤동일, *교회학교 1%의 변화로 성장할 수 있다* (서울: 좋은 씨앗, 2006), 15-17.

146)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180-181.

이처럼 톰슨이 주장하는 관계 중심 전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들의 필요도 만나주지 못한다면, 아예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한다. 여기까지는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하지만 “가정에서도 복음을 증거치 못하면, 그 먼 곳에서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¹⁴⁷⁾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이는 전도자로 하여금 가정 복음화 실패하였을 경우 다른 대상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가정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논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이다. 오히려 가족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만 제외시키면 톰슨의 주장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귀담아야 할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전도의 실천적 지침이 된다.

2. 소그룹 전도

관계 중심 전도의 발전된 형태 중의 하나가 소그룹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 사역으로 잘 알려진 뉴라이프 교회에서는 낚시 모임, 애완견 훈련 모임 등을 통해 소그룹 안에서 불신자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 간다.¹⁴⁸⁾ 조엘 코미스키는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소그룹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계성은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그런 우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그룹은 그 곳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제2의 가족이 되어 줍니다. 이와 같은 가족 관계는 불신자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교회 보다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가진 따뜻한 소그룹 모임에 먼저 참석하는 것을 더 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¹⁴⁹⁾

147) Thompson, *관계 중심 전도*, 49.

148) Ted Haggard, *뉴라이프 전도소그룹 이야기 (Dog Training, Fly Fishing & Sharing Christ in the 21st Century)*, 편집부 편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21-22.

149) Joel Comiske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How to Lead a Great Cell Group Meeting)*, 편집부 편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130.

그러므로 소그룹 전도에서는 그 자체가 전도폭발 훈련이나 4영리 전도법 같이 개인 전도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과정 전도의 한 방안으로 소그룹을 통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에 착안한 전도방법이다. 따라서 특정한 전도 훈련이나 전도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처드 피스의 말처럼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소그룹 전도”¹⁵⁰⁾이다. 그는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개인의 필요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소그룹 전도는 ‘과정전도’에 적합한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다. 개개인이 고민하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세심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소그룹 전도다. 또한 그 모든 정보를 각자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준다. 소그룹 전도 방식을 통해 오랜 순례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영적 순례를 시작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소그룹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소그룹 활동의 지속적인 모임 속에서 서로 돕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영적 성장을 꾀하는 데 효과적이다.¹⁵¹⁾

리처드 피스가 주장하는 소그룹은 전통적인 형태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전도 이론이 제자들의 회심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한 소그룹 역시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는 소그룹 전도가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친구나 가족, 동료, 이웃과 함께 영적인 문제를 찾기 위해 모임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소그룹 성경공부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과정 전도’의 한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¹⁵²⁾

소그룹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소그룹으로 운영하셨다. 캐롤 루키스는 “예수님의 그룹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해 보는 지속적인 학습 연구실이었다”¹⁵³⁾고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이 소그룹 제

150)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411.

151) Ibid., 416.

152) Ibid.

153) Carl F. George et al., *소그룹사역의 새로운 방향 (New Directions for Small Group*

자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회 현장에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뉴 라이프 교회의 경우에는 소그룹의 운영방식이 리처드 피스의 주장과는 다소 다르다. 뉴 라이프 교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소그룹의 개념은 전통적인 방식의 소그룹 사역에서 자유시장 소그룹 사역¹⁵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자유시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진행된 훈련 프로그램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흥미를 잃게 하기 때문이었다. 좀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고 즐겁게 참가하면서 소그룹 인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배우고, 궁금한 것은 질문하고, 자신들이 고민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¹⁵⁵⁾ 이 소그룹이 가져온 전도의 효과에 대하여 헤가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낯시 모임이 전도여행에 필적할 만한 일들을 완수해 낸 것이다. 그들은 서로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자훈련을 실천하게 된 것이며,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취미 생활을 이용한 목적 있는 관계를 통하여 삶까지도 놀랍게 변화되는 계기를 얻은 것이다.¹⁵⁶⁾

또 다른 소그룹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알파코스(Alpha Course)¹⁵⁷⁾라고 할 수 있다. 알파코스는 1976년 영국의 성공회 교회인

Ministry),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역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4), 28.

154) 자유 시장 소그룹 사역이란 자유시장을 통하여 부가 창조되고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공급될 때, 최고의 상품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두신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꿈을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자유를 준다면, 교회 사무실 한 구석에서 만들어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사역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소그룹을 운영해 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불신자와의 접촉점이 형성되고,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는 효과도 있다. Haggard, *뉴라이프 전도소그룹 이야기*, 119-120.

155) Ibid., 271.

156) Ibid., 24.

157) ALPHA는 Anyone can come(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Learn and Laughter(웃으면서 즐겁게 배웁니다), Pasta(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Helping one another(서로 섬기면서 돕습니다), Ask anything(무엇이든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의 알파벳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그러므로 ALPHA는 이 모임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HTB(Holy Trinity Brompton) 교회에서 찰스 만함(Charles Marnham) 신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알파코스는 15개의 토크로 구성된 10주간의 코스이다. 알파코스는 이 15개의 주제 토크를 가지고 매주 한번씩의 모임을 가진다.¹⁵⁸⁾

이 모임에서는 먼저 참석자(게스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따뜻하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환영하며, 함께 찬양을 한 후, 그날의 주제 토크를 함께 듣는다. 토크가 끝나면 잠시 차와 간식을 나누는 후, 소그룹 모임에서 토크에서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질문하고 이야기하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과정 중에 합리적인 복음의 논리가 정돈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소그룹에서 의문이 해소되어, 생동감 있는 신자로 태어나도록 한다. 수료식인 축하만찬에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초청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진행을 한다.

이 과정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말 수양회는 알파코스에 참가한 사람들 각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 가르치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긴장을 풀게 되고, 서로간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달라는 우리의 요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결과 사람들의 삶에 심오한 변화가 생긴다.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다음 번 알파코스에 초대할 수 있게 된다. 알파코스 전체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영적인 진전이 주말 수양회 동안에 이루어진다.

모든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알파축하만찬은 하나의 알파코스를 끝낸 것을 축하하고 다음 번 알파코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 등을 초대하여,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간증과 풍성한 식사 및

158)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1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2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3주: 어떻게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4주: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5주: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6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주말수양회: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할 수 있는가? 7주: 어떻게 악에 대항할 수 있는가? 8주: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9주: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10주: 교회란 무엇인가? 축하만찬(수료식 및 불신자 초대만찬): 기독교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토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초청된 사람들이 다음 알파코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¹⁵⁹⁾

이 과정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교회에서 찬양과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실제적 관계는 맺고 있지 않았으며, 일상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살아있는 실질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¹⁶⁰⁾

이것이 알파코스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알파코스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알파 수료자들은 이러한 다양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게 되며,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다.¹⁶¹⁾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알파코스를 통해 불신자들을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파코스는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알파에 참여하도록 하고 삼투성에 의해 서서히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알파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훈련과정이라고 한다.¹⁶²⁾

분명한 것은 리처드 피스의 주장처럼 소그룹 전도는 매우 효과적이며 가치 있다. 소그룹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고, 영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에 적합하며,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 의식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조차 편안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랜디 프레지는 말

159) Online: <http://www.srsarang.com/>

160) Michael Green, *After Alpha: '알파코스'와의 만남 그 이후*, 유용국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11-12.

161) Ibid., 13.

162) Ibid., 25.

한다.

우리는 복음전도를 가정 그룹의 일들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 복음 전도라 부른다. 그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가정 그룹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만난다. 적절한 때가 이르면, 가정 그룹 구성원들은 농구경기를 함께 했던 남성들을 예배에 초대하거나 공동체 그룹 또는 가정 그룹 모임에 참석하기를 권한다. 지역 목사는 가정 그룹 지도자들에게 복음전도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훈련시킨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에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공동체—사랑과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를 본다면, 그들은 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끌릴 것이다.¹⁶³⁾

또한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소그룹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나누며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강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참석자 모두가 단순히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도와주고, 신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그 뿐 아니라 소그룹은 구성원들이 결단을 내리기 적절한 분위기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보면 그들처럼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그룹의 활성화는 전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준다.¹⁶⁴⁾

그러나 소그룹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소그룹이 전도에 있어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부정적인 요소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마이클 그린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소그룹 모임에서 사람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매우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모임이 너무 자신들만을 위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이 생명력 있게 유지되려면, 방향을 외부로 돌려야 한다. 그리고서 자주 비구성원을 초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163) Randy Frazee,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The Connecting Church)*,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5), 251-252.

164) Peace, *신약이 말하는 회심*, 417-418.

수 있는 저녁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¹⁶⁵⁾

소그룹은 철저하게 불신자 지향적이어야 한다. 일정하게 제한된 인원의 소그룹은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친밀감 위주의 소그룹 역시 불신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모든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참석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알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소그룹의 목표이어야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또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은 ‘고구마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김기동 집사가 독창적으로 창시한 전도법이다. 김기동은 아내의 권고에 못 이겨 겨우 겨우 주일 출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이었다. 그러나 전 가족이 죽을 뻔한 아주 특별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전도자가 되었다.

‘고구마’란 전도 대상자를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즉, ‘생고구마’는 복음에 강력히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 ‘익은 고구마’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계속 ‘젓가락으로 찌르는’(교회 출석을 권유하는) 가운데 익었다 싶을 때는 결정적인 ‘젓가락 찌르기 한판’으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고구마 전도법’이라 한다.¹⁶⁶⁾

이때 첫 번째 젓가락으로 사용되는 전도용어는 “예수 믿으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김기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전도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행 13:48). 그러므로 젓가락으로 찌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2. 솥에 고구마를 찌울 때 익었나 안 익었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찌러보는 일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솥에 넣어 삶아 익은 고구마로 만드는 것이 이 전도법의 기본입니다.

165) Green, *After Alpha: '알파코스'와의 만남 그 이후*, 140-141.

166)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133.

3. 젓가락으로 찔러볼 때 만일 아직 익지 않은 생고구마라면 젓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웬만큼 익어간다면 절반쯤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익을 때까지 확인하고 계속 찔러보는 것이 이 전도법의 특징인 지속성입니다.
4. 고구마에 젓가락 구멍이 한개 난 것보다는 다섯 개 안 것이 더 빨리 익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한 고구마를 많이 찔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¹⁶⁷⁾

이러한 첫 번의 젓가락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 때 다음 젓가락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 그것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와 “너~무, 좋습니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젓가락 찌르기를 하는데 그 때 사용하는 용어는 “기도하고 있습니다”이다. 이 용어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대상자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노방전도를 할 때는 젓가락으로 찌르기에 앞서 칭찬이 선행될 것을 강조한다. “물맛 참 좋습니다”, “집 안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유형의 첨단을 걷고 계시네요” 등의 칭찬을 통해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만날 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전도의 기회를 모색한다.

고구마 전도법은 단순히 개인의 전도를 쉽게 하는 데에만 그 목표가 있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도팀을 이루어 전도를 하는 것도 강조한다. 그런데 전도팀을 구성할 때 전도를 많이 하고 구령의 열정에 가득 찬 사람이 전도대장 혹은 팀장이 되도록 한다. 요일별 전도팀을 분류하여 조를 구성하고 1개조에 3인 혹은 2인으로 전도조를 구성한다. 시작 전에 약 30분 정도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 조별로 조장을 정한 후에, 조원끼리 서로 짝을 지워 마주 보게 해서 복음제시 훈련을 시킨다. 이 때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대상자가 되어 역할을 서로 바꾸어 교대로 실습한다. 훈련된 조원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현장실습 중에는 절대 조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며, 교회의 전도지, 주보, 고구마 발견 신고서, 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가도록 한다. 현장 전도실습 시간을 정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모든 조가 엄수하도록 한다. 다시 모일 때 조장은 조별로 현장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제출한다. 전도팀이 다 모이면 보고회를 갖는다. 보고회 때에는 각 팀장이 대표로 보고하고 실습 중

167)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234.

에 있었던 일, 느낀 점, 앞으로의 각오 등의 내용으로 5분 이내에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할 때에는 예의를 갖추게 하고, 대충 말하지 않도록 하여 훈련의 진지함을 떨어지지 않게 한다. 보고회에서 특별히 은혜롭게 발표한 팀이나 조가 있으면 주간에는 금요 철야예배나 주일 오후 또는 저녁 예배 시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간단히 간증하는 시간도 갖는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사기도 높이고 모든 교인들에게 전도에 대한 도전들을 준다. 그리고 각 팀장은 각 조원들의 보고서를 취합하여 보고된 '고구마'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찌르도록 각 조장을 독려한다. 팀장은 취합된 결과를 정리하여 전도대장에게 보고하고, 전도대장은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교회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한다.¹⁶⁸⁾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은 교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정탐꾼이 대상자를 물색하듯, 수시로 젓가락 전도를 하는 전도법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간단한 전도 용어를 말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훈련할 수 있다. 김기동은 전도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시키는 일을 내 힘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배운 게 없어 말을 못하고, 성경 모른다고 말을 못하고, 내 처지가 초라하다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 가진 이런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내 처지가 초라한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수 믿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¹⁶⁹⁾

이러한 그의 자신감에서 그는 전도를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실천한다. 이러한 그의 전도에 대한 이해는 전도를 두려워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상과 같은 전도 훈련과 방법들은 각 교회에서 적용할 때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과정들이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훈련을 도입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다만, 각각의

168)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244-246.

169) Ibid., 129.

훈련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서, 그 단점들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몇 가지의 문제들만을 보완한다면 이상과 같은 훈련들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전도훈련은 전도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제 5 장

소망교회의 전도훈련

다양한 전도 훈련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이 때 훈련의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훈련을 통하여 실제로 전도되는 사람의 증가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훈련을 통하여 배출된 전도자가 세상 속에서 그 훈련된 전도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얻게 되는 산출물이다.

전도 훈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척도는 훈련에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도대를 구성하여 매주 전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생활 속에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전도의 결과는 신속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훈련을 받은 개인이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전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의 기회를 찾아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훈련은 효과적인 전도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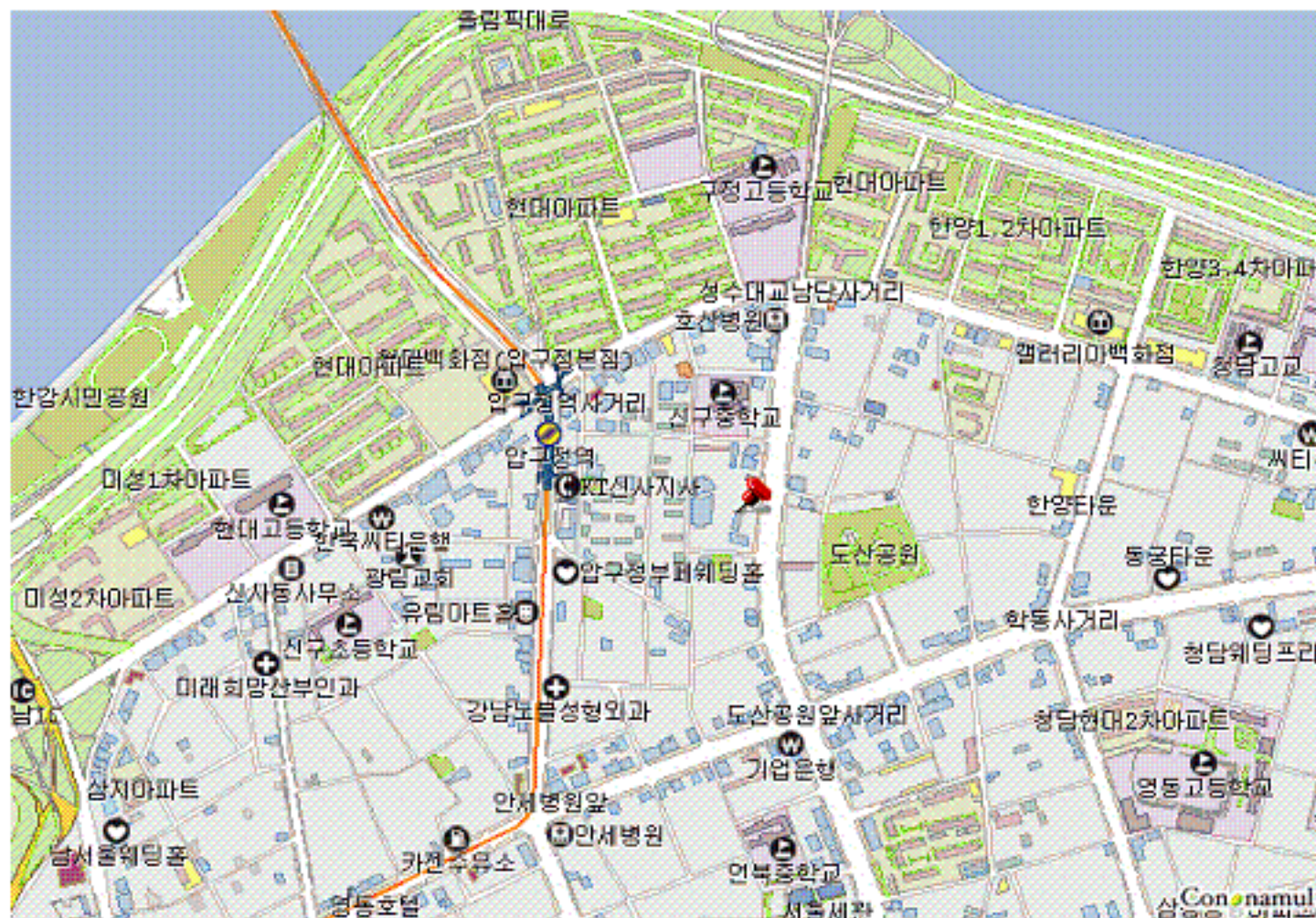
소망교회에서는 위의 두 가지 훈련의 결과 중에서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훈련이 계획되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소망교회 안에서 전도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2004년부터 해마다 소망교회에서는 전도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 전도학교의 운영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먼저 소망교회가 처해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 거하는 전도대상자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다. 이어서 그러한 여건 속에서 소망교회의 교인들을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전도학교를 구성하였는데, 그 운영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제 1 절 지역분석 및 전도대상자 연구

소망교회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소망교회의 주소는 신사동이지만 행정처리는 압구정동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압구정동 소망교회’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망교회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압구정동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소망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지역분석

<그림 1> 소망교회가 위치한 신사동 주변 지도



소망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사동은 북쪽에서 접근할 때 강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교통과 인구가 집결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 큰 한강 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북강변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다. 또 도산대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소망교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지도로 살펴보면 위와 같다.

1975년 한강변에 23개동 1천 5백 62가구의 현대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 지역은 2006년 7월 1일 현재 단독주택 2,965세대, 아파트 3,311세대, 연립 및 빌라가 328세대 그리고 업무용 상가가 328세대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¹⁷⁰⁾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에 도산공원 주변의 로데오 거리와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등 상가의 발달로 인해 상업지역으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춘 지역이다. 이 외에도 신구, 구정 등 2개의 초등학교와 신사, 언북, 신구, 구정 등 4개의 중학교, 현대, 영동, 청담, 구정 등 4개의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교육적 환경도 공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관련된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임운택은 이 지역이 “한강물이 발아래 유유히 흐르고, 멀리 북한산 연봉과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이 보이고, 아차산, 남한산, 청계산, 관악산이 두루 보이는 뛰어난 터전”¹⁷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외에 강변 시민체육공원이 있어 생활체육활동 및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패션, 화랑, 편의시설 밀집지역으로 생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2. 전도대상자 연구

김연택은 “전도대상 지역의 인구수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¹⁷²⁾고 하였다. 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소망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2006년 7월 1일 현재 신사동의 인구는 총 8,664세대에 총 인구 21,418명이다. 이 중 남자가 10,054명, 여자가 11,364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이 지역 내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권자가 47세대 79명,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2세대 5명인 것으로 보아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의 직업은 의사, 판·검사, 교수, 사업가 등으로

170) 임운택, *소망교회 이야기*, 317.

171) Ibid., 317.

172)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341.

그 사회적인 인지도가 꽤나 높은 사람들이다.¹⁷³⁾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임운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5년에 현대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청와대, 중앙정보부, 국방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총리실, 서울시, 국세청 치안본부, 고위 공무원, 판검사, 국회의원, 변호사, 그리고 언론계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그후 지어진 아파트에도 비슷한 계층의 입주자들이 압구정동을 찾았다. 그리하여 새롭게 형성된 '강남 압구정동'에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었다.¹⁷⁴⁾

실제 주거지역인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그리고 한양아파트 지역이 모두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로 발표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여유 있는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반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비교적 넓은 평형의 주택들이어서 빈민층 보다는 중산층이 많은 지역에 소망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발달된 백화점과 문화 예술 공간 등으로 인해 외부인의 유입이 많은 편이며, 상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상주인구로는 오랜 기간 정착된 고연령층이 많은 반면, 유동인구로 보면 이 지역의 문화와 소비를 추구하는 젊은 연령의 인구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압구정동은 주거와 상업문화, 그리고 남녀노소 각각의 연령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망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전도대상자는 아주 다양하다. 주거지역으로 보았을 때에는 비교적 고연령층의 고소득자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중년층의 중산층도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학부모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10개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이 학교를 다니는 중고 청소년들과 초등학교 아동들 수천 명도 역시 전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변 상권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20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그들이 또한 전도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지역이어서 소망교회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도대상자가

173) Online: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110&docid=32153706

174) 임운택, *소망교회 이야기*, 317-318.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 2 절 전도 훈련

교회 성장 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란은 그의 저서인 *Understanding Church Growth*에서 교회가 전도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전도를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본질적인 과제는 수용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그들의 이웃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한 수용성에 맞게 선교의 방법이나 제도 그리고 직원들을 조정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전도가 요구된다.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은 자를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새로운 회중들이나 기존의 회중들 속에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도를 효과적인 전도라고 부르는 것이다.¹⁷⁵⁾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전도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맥가브란이 지적한 효과는 전적으로 전도대상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도대상자를 찾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일을 도와주는 전도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소망교회에서 운영하는 전도훈련은 그러한 목적 하에 준비되었다. 이 때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훈련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하여금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맞추어진 소망교회의 전도훈련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의 방법

가. 훈련 기간과 시간의 운영

소망교회에서의 전도훈련은 총 8주로 구성하였다. 시간은 해마다 다르게 운영하

175)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192.

였다. 1기를 배출한 첫해였던 2004년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모이는 것으로 하였다. 2005년의 2기 훈련생은 목요일 저녁 7시30분에서 9시 30분까지 모였다. 그리고 2006년에 운영한 3기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모임을 가졌다.¹⁷⁶⁾ 이 때 2시간은 함께 모여서 찬양과 교육 그리고 조별 나눔을 하는 시간이다. 이 외에 개인적으로 실습을 하거나, 과제를 하는 시간은 교과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2시간 동안의 모임은 먼저 지난주에 제출한 과제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첫 주 이후에는 매주 일정한 분량의 암송과제가 부과되는 데 이 암송과제를 점검하는 것으로 훈련은 시작되었다. 약 10분간에 걸쳐서 암송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나면, 암송을 점검한 종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찬양을 하면서 강의를 들을 준비를 하였다. 찬양은 약 10분간 진행되고, 찬양이 끝나면 다함께 강의자와 강의를 듣는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 후에는 강의가 40분씩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나면, 과정에 대한 정리와 함께 다음 주 과제와 진행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안내 후에는 조별로 흩어져서 약 20분간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 시간에는 지난 주간에 실습했던 전도내용을 상호간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나. 훈련 과정과 과제물

훈련은 총 8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나, 결석과 지각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1회 결석은 수료가 가능하나, 2회 이상 결석하면 수료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각 및 조퇴는 2회당 1회의 결석으로 간주하였다. 주간 숙제는 반드시 그 주간에 완료하도록 하고, 2회 이상 숙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수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매주일 제시되는 암송 구절은 철저하게 암송해야 하고, 매주 강의 시작 시에 암송 내용을 점검하였다. 암송을 강조하는 것은 전도를 위한 교재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언제라도 전도가 가능하도록 훈련하는 데 있다. 론 쾰리는 암송의 중요성에 대하여 “개인전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경의 산지식을 얻는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176) 2기에 저녁에 훈련을 한 것은 낮에 참석할 수 없는 남성들과 직장인들을 위한 배려였다. 하지만 이들은 바쁜 관계로 훈련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다시 3기 훈련은 낮시간으로 배정되었다.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것”¹⁷⁷⁾이라고 강조했다.

훈련과정 중에 독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추천한 도서 중에서 2권의 책을 읽고 독서보고서를 A4용지 1매 분량(200자 원고지 10매)으로 작성하여, 월 1부씩 제출하도록 하였다.¹⁷⁸⁾

본 과정 중에 4주차부터는 교실수업과 현장실습이 병행되었다. 교실 수업이 끝난 이후 매주 1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전도를 실습하고, 실습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조별 보고회 시간에 가졌다. 전도 대상자는 먼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으로 하고, 그 외에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중에 찾도록 하였다. 그리고 7주차 현장실습 시에는 조별로 전도 현장을 정하여 단체로 나가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모든 현장 실습 후에는 ‘4영리 복음제시 실습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작성된 보고서는 다음 모임 시 조별 모임을 하면서 모두가 발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실습 훈련 역시 모두가 참여하며, 불참 시에는 수료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7주차 실습 전에 학습한 내용들을 모두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며, 평가에 합격해야 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주차 과정 후에는 지원자에 한하여 제주도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노방전도 현장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학업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다. 매일 하나님께 그의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고, 깨끗한 도구로 만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잡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일과를 시작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구력과 인내와 집중력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주시도록 기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는, 주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였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바울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주님이 겿

177) Sanny, *개인전도의 방법*, 19.

178) 이때 추천한 도서목록은 빌 하이벨스의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두란노), 김길복의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예찬사), 김인아의 *아름다 전도왕*(규장문화사), 박병선의 *진돗개 전도왕*(생명의 말씀사), 존 웹버의 *능력전도*(나단), 박효진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홍성사) 등이다.

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다. 신실하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신실한 기도는 풍성한 응답을 가져다주는 법이다.

셋째는, 전도를 생활화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전도는 매주 훈련시간에만 제한될 수 없다. 전도는 생활영역 만큼이나 넓어야 한다. 전도실력이 향상되어가는 동안 동료들과 친구들로 더불어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상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찾아 전도를 생활화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한다.

넷째는, 훈련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도록 하였다. 목수가 자기의 일을 단순히 나무에 못질이나 하고 자로 재고 자르는 것으로 인식할 때는 이내 싫증이 나서 그만두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옷장이나, 집이나, 혹은 어떤 건축물을 내어다보고 지금 한 번에 한 단계씩 일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할 때는 아주 신이 나서 만족스럽게 일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책을 읽고 암기하고 연습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가장 위대하신 분의 이름으로 가장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각 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사전에 미리 연습하고 학업이 끝나면 복습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섯째는, 완전하게 익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 기간은 모처럼 전도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만큼은 배우는 내용을 완전하게 익히는 일에 힘쓰도록 한다. 그 일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에 철저한 숙지를 목표로 하면, 후에 그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어렵거나 두렵지 않다. 그 일을 위해서 다소의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곱째,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누구나 다 일주일에 168시간 밖에는 더 사용할 수가 없다.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울 때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휴식시간, 공부시간, 방문시간, 일하는 시간 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긴급하지 않

은 하찮은 일들이 중요한 시간들을 뒤덮어 꼭 해야 될 일들이 뒤로 미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⁹⁾

2. 훈련의 내용

가. 복음에 대한 이해

전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앞에서 논하였다. 따라서 소망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훈련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된다. 김상복도 전도를 훈련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복음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도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도 폭발」처럼 복음을 요약해서 단 시간에 결심으로 인도하는 단기적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에 접하게 하는 「생활 전도」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고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으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제시하는 데 서론(도입부)이 짧으나 기나 하는 논쟁들을 하는데, 서론이 짧은 길든 언젠가는 복음의 핵심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전도 훈련은 복음의 핵심을 집약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¹⁸⁰⁾

따라서 전도학교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내용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이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앙고백을 점검하고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먼저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하며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심을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의 홀리신 피와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셨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며 권능

179)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편, 전도폭발 III 1단계 훈련교재, 12-13.

180) 김상복, 당신은 확실히 전도하십니까, 10.

과 영광으로 친히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잃어버린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종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는다. 영생은 믿음, 곧 자기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참 믿음으로써만 받는 줄로 믿는다. 성령께서는 모든 참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믿는다. 구원을 받은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이 다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 잃어버린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게 됨을 믿는다. 모든 참 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전도활동을 벌이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임을 믿는다. 모든 참 신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는다.

이렇게 신앙고백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해한 후에는 전도폭발 복음제시 내용에 입각하여 복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의 진단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따라 답을 하는 형식으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두 가지의 질문은 “첫째, 당신은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하는 것이고, “천국문 입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은혜로 시작이 된다. 이 때 은혜란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는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영생)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천국(영생)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이다. 구원(영생)을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현세적 믿음이다. 구원(영생)을 얻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해당되는 성경구절과 병행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전도와 관련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경 구절(마 28:19-20; 막 16:14-16; 눅 24:45-49; 요 21:15; 행 1:7-8)에 근거에서 확인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나가는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 그 곳이 일터이다. 제자를 삼아야 한다. 세례를 주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계속 돌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29절에 전도와 관련해서 교회가 할 일 네 가지를 살펴 보았다. 그것은 새 생명 얻게 하는 일, 권하는 일, 가르치는 일,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다.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서, 활력이 넘친 교회(성령충만, 전도, 깨끗함, 박해를 이김)이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모교회 부흥, 개척교회를 세움, 모두 일꾼이 됨)했고, 순수한 복음(설교의 원형제시, 그리스도 증거, 성경을 배움)으로 자랐으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기도하고, 합심하고, 꿈을 가지고, 순종했다.)였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나. 전도의 자신감 고취

2주차 과정의 주된 목표는 전도에 대해 자신감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김기동 집사의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는 것으로 1교시 강의를 대신했다. 이 비디오테이프의 특징은 강사를 직접 모시지 않아도 강사를 모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그리고 2교시에는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먼저, “전도는 누가 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 답으로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답을 제시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는 말씀과 함께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라고 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도 제시했는데 전도할 말을 모르니 어렵고, 무슨 말부터 전해야 할지 모를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해 겹을 먹기 때문에 더욱 말이 나오지 않는다. 훈련을 받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전도하면 어렵고, 전도해 대한 실제적 지식이 없으면 어렵고, 몇 번 전도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낀다. 그러므로 전도를 배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었다.

다. 전도의 필요성

전도학교의 3주차 과정은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갔다.

첫째 이유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파송하고자 하신다.

둘째 이유는,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막 1:38)” 라는 본문에 근거하면 주님은 말로만 명령하는 분이 아니다. 직접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범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 그 모범은, 이미 얻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셋째 이유는,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교회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라는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바로 앞인 18절에 들어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면 18절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교회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교회뿐 아니라 온 세상에 관심하고 온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넷째 이유는, 주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되어 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영혼을 나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실족하게 할 수 없다.

다섯째,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과 사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히 5:1).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제사장 본인만을 위함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함이다. 제사장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여섯째는, 교회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 전도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교회는 건강해지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한다.

일곱째는, 전도자에게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7-18). 전도자는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길을 가는 사람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즉, 내가 전도의 자리에 서면 그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

그렇다면 왜 전도를 훈련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도 제시되었다. 군사가 훈련받지 않은 상태로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다. 전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영적인 전쟁이지만, 영혼을 구하는 그 자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한다. 처음 부름 받은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주님께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라. 4영리 전도법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훈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교회가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자신감의 고취와 충분한 암송은 중요하다. 이상만은 말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복음 제시 도구로는 네비게이토의 ‘다리’, 대학생선교회(CCC)의 ‘사영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의 ‘전도 폭발’이 있다. 자신의 전도 스타일에 따라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어느 하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개발해서 사용하든지 여하튼 자신감 있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 제시는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복음제시 방법 중 하나를 정하여 별도로 복음 제시 훈련을 시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복음 제시 내용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모두 암기하도록 한다.¹⁸¹⁾

소망교회 전도학교에서 훈련의 주된 교재로는 4영리가 사용되었다. 4영리에 대한

181)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243.

강의는 2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먼저 4영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4영리 소책자는 이 훈련의 중심 교재이다. 4영리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든 책자이다. 4영리만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는 유일한 책자나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4영리 책자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이 실려 있다.

그리고 4영리 이용의 장점들도 제시했다. 간단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4영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 줄 수 있다. 4영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그리고 난 후 4영리의 내용을 각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4영리의 주제문 네 문장을 암송하도록 하였다. 암송 후에는 들쭉 찢어서 연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4영리에 관련된 내용은 2주간 계속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들에게 4영리를 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어떤 사람과 4영리를 나눌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환질문이 있다. 첫째, “4영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4영리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4영리라 하는 이 소책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준 한 소책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책자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4영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알려주는 4가지 원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라고도 할 수 있다.

이어서, 4영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4영리를 전하는 방법은 그대로 소리를 내어 읽어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만일 상대방이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할 때에는 4영리를 계속 읽어 가는 동안에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설명해 준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4영리를 다 읽은 후에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질문의 진실성 여부를 분별하여 간단한 질문은 대답해 주고 계속해서 4영리를 진행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심을 기억하도록 한다. 만일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읽기를 중단하고 “이해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책자를 손에 들고 읽어야 한다.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읽는 곳을 볼펜으로 가리키면서 말해야 한다. 모임에서는 각 사람에게 4영리를 한 권씩 나눠 준다. 모인 무리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기도한다. 만일 한 두 명뿐일 때는 그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한 그 분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권면한다. 만일 어떤 이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 들어오실 것을 믿지 않고 4영리에 있는 기도를 하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 원하는지, 4영리에 있는 대로 기도하기 원하는 지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기 원할 것이다. 이미 4영리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라면 4영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질문이 있는 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만일 관심이 있으나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4영리를 전해 준다.

같은 사람과 4영리를 두 번 이상 나누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면, 다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고 그의 질문을 의논하기 위해 만남의 약속을 한다. 그에게 ‘4영리 소책자’를 주고 읽도록 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 그를 다시 만나면 그에게 여러분과의 대화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았는지 또는 무슨 질문이 있는지 가끔 물어 본다. 상대방이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면 만나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새로운 질문이 있는지 또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 본다. 처음 4영리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영리를 전할 때 마무리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질문이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크게 개의치 말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하여 4영리를 기도문까지 읽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질문한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 때 ‘예’라는 경우 그가 영접기도를 한 마디씩 소리 내어 따라 하도록 인도한다. ‘아니오’라는 경우는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니면, 4영리의 13페이지를 펴서 다섯 가지 결과를 미래형으로 읽어 준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다섯 가지 결과를 읽어준 후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예’라고 하면 10페이지로 넘어가서 영접 기도를 한다. 만일 ‘아니오’라고 하면 그가 시간을 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후에 다시 읽을 수 있도록 4영리 책자를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마. 반대질문 처리법

4영리에 대한 교육이 끝나게 되면 전도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질문들을 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대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반대 질문들의 성격을 미리 알고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3장 13-15절은 반대질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답할 것인가를 잘 증거해 준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3-15).

먼저, 우리의 삶은 반대자의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임을 주지시켰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

다.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해 준 데 대해, 겸손히 감사를 표한다. 구차한 변명이나 논쟁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 질문자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관해 대화하면, 오히려 전도의 좋은 계기가 된다.

인내로 섬기도록 하였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8). 전도자에게는 반대와 고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막 13:13). 그러나 전도자가 당하는 그 반대와 고난은 복이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행 5:41).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여유를 갖는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열정이 우리로 영적인 주도권을 지니게 한다.

전도를 위한 나의 간증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짧게 설명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나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한다.

반대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된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이다.” “종교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차라리 내 주먹(능력)을 믿는다.” “천국, 지옥, 부활 등은 없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불교의 전생과 환생에 관한 증거들도 있다.” “귀신과 무당(신내린 무당)이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 “집안의 종교에서 나만 벗어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나 믿지 않고 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렵게 살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으면서도 잘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성경 말씀에서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성호의 주장대로 “전도시 반대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지로 해서는 안 된다. 기지로 하면 전도받는 상대자가 그 사실만큼은 인정할지 몰라도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 미움이 생겨서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킨다.”¹⁸²⁾ 브라이언 맥라렌은 전도자가 말하는 데

182) 윤성호, 전도시 반대 질문 100가지 (서울: 예찬사, 1995), 1.

있어서 어휘사용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새로운 세상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자들은 어휘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이 웃음과 사랑과 연민과 관용을 실현되는 삶을 그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단어를 사용하며, 그와 동시에 지루하지 않게 하고, 과장하지 않고, 약속을 남발하지 않고, 논리나 진리 혹은 고결과 창조적 능력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신비를 전하되 미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스승은 말을 하되 적게 말하고, 제자와 하나님의 성령 모두의 말을 경청한 후에 말해야 할 것이다.¹⁸³⁾

전도자에게 있어서 바른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전도자의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 이 때 철저한 영적 준비를 통한 온유함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이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바. 현장 실습

반대 질문 처리법에 대한 공부 끝나면 이제 현장 실습을 위해 준비할 사항들을 가르쳤다.¹⁸⁴⁾ 먼저, 전도는 예의 있게 해야 한다. 좋은 것을 전하면서 무례히 행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막아서는 안 된다. 조심스러운 접촉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먼저 보는 것은 나의 행동이다. 나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 한다. “저는 ○○교회의 ○○○입니다.” 다른 손님이 있을 경우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면서 인사한다. 복음을 제시하는 동안 방해자가 없도록 동행한 사람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몰라서 묻는 질문일 경우 간단히 답한다. 질문을 위한 질문일 경우 논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울도 아덴 전도에서 많은 변론을 했지만 성과는 적었다(행17:17-18). 반대자의 의견을 정면으로 받지 말고 비켜서도록 한다. “그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것은

183) Brian McLaren, *저 건너편의 교회* (*The Church on the other side*), 이순영 역 (서울: 낮은 울타리, 2002), 114-115.

184) 현장실습은 중요하다. 론 세니는 *개인전도의 방법*에서 “우리는 개인전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강의도 들으며, 책을 읽기도 하는 등,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57-59.

조금 있으면 알게 되고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은 성경으로 하도록 한다. 따라서 전도자는 반대의견에 대한 사례들을 모으고 성경으로 답할 것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

전도자의 외모도 단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껌이나 커피 등으로 냄새를 없애고 복음을 전한다. 머리의 비듬이 옷에 묻어 있지 않도록 잘 손질하고 상대방을 만난다. 옷 모양은 단정하게 입고 너무 사치한 옷은 삼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한다.

전도대상자와 이야기 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대하도록 하였다. 처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야 할 것이다. 만나서도 평안을 비는 기도를 드린다. 그 후에도 복음을 제시할 때에 속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둘이 갔을 때는 한 사람이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한다. 말은 내가 하지만 역사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므로 기도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 막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어떤 경우는 그 많은 말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 “그 말은 틀렸고…”하는 식으로 말하면 예의에 벗어난 말이다.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주장을 말한다. 되도록이면 내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씩 전도하러 가도록 하였다. 이것은 주님이 실천하신 방법이다. 둘씩 갈 때 두려움이 반감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된다. 오해도 받지 않게 된다. 한사람은 분위기를 깨지지 않도록 조성하니 더욱 좋다. 한 사람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한다. 전도자의 말이 막힐 경우, 보충으로 설명을 하여 도울 수도 있다. 전도자는 일생에 전도의 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서로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갈 때에 항상 연락하고 같이 다닌다.

이 외에도 비신자 접촉 전략에 대하여 자료를 통해 전도자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실제 전도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고취하게 하였다.

사. 성령충만과 기도

전도학교의 마지막 과정은 전도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이다.

먼저,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 순종한다. 나는 사단을 볼 수 없고 사단은 나를 보고 있으니 성령께 의존한다. 성령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사 전도자로 세우신다. 과학의 시대에도 성령께서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을 구하신다. 성령께 온전히 의존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

여기에 성경적 실례들이 제시되었다. 사도들은 성령충만 하고서야 비로소 전도했다. 주님께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체험했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성령충만한 후에 전도자로 일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서 전도했다(행 8:26). 바울은 드로아에서 성령의 지시대로 행했다(행 16:7-10). 전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다.

성령충만의 역사는 복음전파와 관련이 있다. 오순절의 성령충만은 17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행 2:1-4). 사마리아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행 8:14-17). 고넬료 가정에 성령께서 충만하심은 복음이 로마인들에게도 필요함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여기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행 10:44-46). 에베소에 성령 충만한 것은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행 19:6-7). 성령충만은 하나 되는 곳에 있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에 있었다. 말씀과 기도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 특히 전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고전 6:19).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갈 6:24).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한다(갈 6:8). 성령께서 사람에게서 하시는 일은 많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요 16:8). 그러므로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다. 회개와 뉘우침은 차이가 있다. 뉘우침은 시작이 나의 힘이다. 그러기에 또 다시 범죄하게 된다. 회개는 시작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요 14:26; 엡 3:16).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심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신다(골 1:6). 성령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갈 5:22-23). 성령께서 이처럼 신자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의 보증이 되어 주

신다(엡 1:13-14).

성령충만은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받을 준비는 사람이 해야 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눅 11:13).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행 5:32).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요 7:39).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으신다. 안디옥 교회에 열정을 불어넣으셨다. 18-19세기에 구미 교회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 넣으셨다. 한국교회에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으신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전도는 기도와 병행해야 함을 다시 강조했다. 왜냐하면 기도는 통신이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통신이 무기에 해당함과 같이 기도가 무기이다. 전도는 사단의 휘하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힘만 가지고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 위로부터 주시는 영광의 힘이 필요하다(골 1:11).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롬 8:26-28).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수정하여 주신다. 성령께서 기도로 거룩하게 해 주신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전도자를 도우신다. 기도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행 13:2). 기도로 인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요 16:13). 기도로 잘못된 일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요 16:8).¹⁸⁵⁾

기도는 성경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것도 언급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다. 성경말씀과 함께 하지 못한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되기 쉽다. 참된 기도는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기도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이다. 말씀의 묵상이 곧 기도가 되도록 훈련하도록 하였다.

기도는 또한 호흡임을 주지시켰다. 전도자에게 기도는 필수적인 일이다. 전도할 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 반드시 대상자에게 어떤 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처음 대상자

185) 이 부분은 총회 전도학교 *개인전도 훈련교재* 제5주차 2교시 강의내용에서 발췌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70-71.

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서 만난다. 만나고 돌아와서 그 대상자를 위해 다시 금 기도한다. 생명의 씨를 심는 날에 특별히 기도한다. 방해가 없도록, 씨를 잘 받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인도하는 날에 기도하고 가서 인도한다. 양육할 때에 날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한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처음이고 진행이고 나중이다.

기도하고 대상자를 만나면 복음증거가 쉽다는 것을 알도록 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에 있는 장애물도 발견케 하셔서 처리되기 때문이다. 위해서 기도한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먼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다. 진지하게 생명의 씨를 심게 된다. 생명력 있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전도자로 하여금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기도회 시간이다. 새벽기도회는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기도이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려면 전날 일찍 잠을 자야 한다. 예배당이 멀리 있는 사람은 걸어서 참석하면 육체의 운동도 된다. 하루의 처음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면 시간 배열상 잘 된 일이다. 아직 새벽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이 기회에 시작하도록 한다. 기도는 은사 이전에 훈련이다(눅 11:1).¹⁸⁶⁾

이상과 같은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소망교회의 전도학교가 진행되었다. 진행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부각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원만한 진행으로 평가 된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루게 될 것이다.

186) 이 부분은 총회 전도학교 *개인전도 훈련교재* 제4주차 2교시 강의내용에서 발췌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56-57.

제 6 장

전도훈련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장에서 언급한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소망교회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는 3년간 총 241명이 참석하여 수료하였는데, 매 수료시마다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그 설문조사의 내용과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에서 논했던 전도훈련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훈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건의사항 등을 통하여 훈련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전도훈련에 대한 평가

소망교회에서 실시한 전도훈련에 대한 설문조사는 총 1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전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주관식으로 묻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14개의 객관식 질문을 통하여 훈련의 내용, 진행사항과 일정, 강의와 과제물, 전도법과 노방전도, 훈련의 효과 등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3개의 주관식 질문을 통해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그 질문을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훈련의 내용

전도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인 첫 번째 질문 내용은 “금번 전도학교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이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이

답한 내용은 “좋았다”는 것이었다. 절대 다수가 이 과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장 많이 답한 내용은 “전도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였다. 또 “확실한 전도의 방법을 알았다”고 한 사람도 다수 있으며, “전교인의 필수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도의 절박함을 느꼈다”, “내 자신이 바로 서야함을 알았다”, “그 동안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등의 반응도 다수를 이루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삶의 생기가 넘치고 은혜롭고 보람되었다”, “한 영혼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견해도 있었다.

개인의 의견으로는 “힘이 들어서 마음고생도 했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전도 학교 다녔음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또 “전도방법에 대한 체계화가 가능하였고, 엄격한 학사관리가 좋았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으며 예수님과 만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의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나의 영혼에게도 확실한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다.

또 “막연하게 전도했었는데 4영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과 전도의 필요성이며 잊고 있었던 전도를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전도한다고는 했으나 정통성 없는 전도법으로 사용하다가 4영리의 방법으로 전도하게 된 것과 더 많은 기도와 열정이, 사랑이 있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도에 필요한 말씀들을 4영리를 통해 확실히 암송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등의 고백을 통해 4영리를 통한 전도훈련과 4영리의 내용을 암송토록 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암기과제와 독후감의 부담이 은혜로 남는 결과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외에도 전도학교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객관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241명 중 70.1퍼센트인 169명이 “매우 좋았다”고 하였다. 29퍼센트인 70명은 “좋았다”고 하였으며, 1명이 “그저 그렇다” 그리고 1명이 무응답을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지난 3년간 실시한 소망교회의 전도학교는 훈련생들로 하여금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개 항목과 단점을 묻는 질문에서 부정적 견해도 없지 않았다.

2. 진행사항과 일정

총 8주에 걸쳐서 진행된 전도학교의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너무 길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약간 길다고 한 사람이 3명 있었으며, 66.4퍼센트인 160명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27.8퍼센트인 67명은 “약간 짧다”고 답을 했으며, “너무 짧다”고 대답한 사람이 5명, 무응답이 6명이었다. 따라서 8주간의 교육과정은 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8주간도 약간 길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짧기 때문에 다소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는 않았다.

전도학교의 진행사항과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39.4퍼센트인 95명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57.3퍼센트인 138명도 “좋았다”고 평을 했으며, “그저 그렇다”고 말한 사람은 5명, 무응답이 3명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좋다는 평가가 우세했으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소수가 있었다.

전도학교의 수업시간은 매일 2시간씩이었는데 이 수업시간의 길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1명이 너무 길다고 하였다. 85.9퍼센트인 207명은 적당하다고 하였고, 19명은 너무 바쁘게 진행된다고 생각했으며, 너무 짧다고 한 사람도 7명이 있었다. 2시간의 수업을 지루하게 느낀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2시간의 수업시간이 적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3. 강의와 과제물

전도학교에서 진행된 강의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55.6퍼센트인 134명이 “매우 유익했다”고 하였다. 43.1퍼센트인 104명도 “유익했다”고 하여 많은 사람이 강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명은 별로 라고 대답했으며, 1명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과제물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4명이 “너무 많다”고 답을 했으며, “많다”고 대답한 사람도 56명으로 23.2퍼센트나 되었다. “적당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175명으로 72.6퍼센트가 되고, 적다고 말한 사람도 5명이 있었다. 1명을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과제물에 대한 견해는 적당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지만, 너무 많아서 부담을 느낀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도학교에서 과제물로 내주었던 것들 중에 암송내용의 분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명이 “너무 많다”고 하였고, 68명이 “많은 편이다”라고 답을 해서 28.2퍼센트가 과제물의 양이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 “적당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57.6퍼센트인 139명이고,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명 있었다. 암송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적당하게 생각한 반면 부담을 느낀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훈련을 하는 동안 2권의 독서과제가 부과되었는데 이 책을 읽은 것에 대하여 74.5퍼센트인 180명이 “유익했다”고 평가를 했다. “매우 유익했다”고 답한 사람도 37명이었으나, “별로였다”고 평가를 한 사람도 21명이나 있었다. 독서를 통하여 도전과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많지만, 읽기 과제가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4. 전도활동과 훈련에 대한 평가

전도학교에서 주 전도방법으로 사용하였던 4영리 전도법의 유익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57.3퍼센트인 138명은 “매우 유익했다”고 대답했다. 이 외에도 40.7퍼센트인 98명도 “유익했다”고 답을 한 것으로 보아, 4영리를 통한 전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4명은 “별로였다”고 평을 한 것으로 보아 4영리 전도법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도 이후에 조별로 모여서 전도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74.5퍼센트인 180명은 “유익했다”고 하였다. 15.3퍼센트인 37명도 “매우 유익했다”고 평한 반면, 21명(8.7퍼센트)은 별로였다고 평가를 내려 조별 보고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조의 특성에 따라 조별 모임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2차례의 노방전도 현장 실습이 있었다. 이 현장 실습의 경험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82.6퍼센트인 199명이 “매우 좋았다” 또는 “좋았다”고 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10명, “안 좋았다”고 대답을 한 사람도 3명, 무응답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실제 현장에서의 전도를 어렵게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훈련을 통한 효과를 묻는 질문은 객관식이지만 복수로 정답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래서 전도훈련을 마친 참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159명(70.0퍼센트)은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145명(60.2퍼센트)은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했으며, 139명(57.7퍼센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70명(29.0퍼센트)은 “복음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5. 전도학교의 장점

마지막 질문 세 가지는 전도학교에 참석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과 가장 불편했던 것 그리고 그 밖의 건의사항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장점으로서는 전도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다. 전도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교육과 여행을 통한 교제의 이점도 누릴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책읽기나 독후감 쓰기를 통해 전도에 대한 도전과 자신감을 얻게 된 것도 유익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4영리를 암송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4영리를 통해 복음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정리했다고, 4영리의 암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도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 시각도 있었다. 현장 전도 실습이나 제주도 전도여행이 기억에 남는다고 평가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복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전도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였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장점 중의 하나이었으며, 스스로를 위해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다. 어떤 분은 “소망교회라면 전도라는 말을 멀리 있는 단어 같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는 귀한 분들과 함께, 4영리라는 놀라운 복음서를 통해 전도되는 역사를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고백들을 점검해보면 전도학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전도학교 자체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6. 단점과 건의사항

한편 전도학교를 하면서 단점으로 여겨졌던 것은 시험과 독후감에 대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매주 암송과제와 함께 암송 점검이 어려웠다고 말했으며, 수업시간이 2시간을 넘어가는 문제와 다른 형사와 겹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좌석배치의 소란스러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으며, 조의 특성상 조별 나눔이 길어지는 문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장소가 비좁아서 불편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1기가 수요일 오후에 진행할 때는 수요일 저녁에 배와의 시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웠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밖의 건의사항으로는 모든 성도가 다 이 훈련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으며, 전도 후 전도된 영혼에 대한 관리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도 학교가 끝난 이후에 후속 교육으로 중급 또는 고급 과정이 개설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도 전도여행이 부담스러우므로 서울 근교로 나갈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으며, 교육 기간이 짧은 관계로 조금 연장시켜 줄 것에 대한 요구와 전도 실습시간이 더 길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수료 후에는 교회 내의 소속된 부서나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전도사역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요구도 있었고, 전도여행 시에 개인별 전도구역을 더 확실히 배분해서 한 지역을 중복해서 전도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의도 있었다. 4영리 이외에 다른 전도법을 더 배우기 원하는 요구도 있었고, 반대 질문에 부딪혔을 때 그 질문을 다루는 법에 대하여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1년에 한 번 전도학교가 개설되기 보다는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되기를 원하는 것과 팀원들 간에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4영리의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표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전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중요한 건의사항들은 소망교회의 전도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이런 단점들이 잘 극복되고 건의사항들이 잘 반영된다면 보다 더 짜임새 있는 전도학교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제 2 절 평가에 대한 분석

지금까지는 소망교회에서 실시한 전도학교의 훈련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피교육

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항목별로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개개인이 답한 내용의 통계와 구체적인 답변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그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전도학교의 구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먼저 설문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각각의 설문결과들이 보여주는 의미들을 분석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설문의 결과에 대한 분석

먼저 전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절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은 수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소망교회에서 실시한 전도학교가 훈련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본 훈련과정이 역시 완벽한 구성이 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각각의 개별적인 항목들 속에서 본 훈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주간의 훈련 기간에 대한 평가는 66.4퍼센트가 “적당하다”고 대답하였지만, “약간 짧다”고 대답한 사람의 수도 27.8퍼센트로 적지 않았다. 그래서 훈련생들의 입장에서 대부분 기간의 연장을 원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강의의 전체 진행을 책임졌던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8주 동안에 전도자를 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경험하였다. 그래서 별도로 제주도 전도여행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실습의 기회를 늘리는 방식도 취하였다. 하지만, 정규교육과정을 8주를 초과하여 연장하는 것은 참여율의 문제와 훈련생들이 느끼는 지구력을 감안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긴 훈련기간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루 2시간씩 진행하였던 수업시간에 대한 평가도 85.9퍼센트가 “적당하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 생각한 견해와 “너무 짧다”고 생각한 견해도 있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보다는 강의의 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이 알차고 흥미롭게 구성될 때 그 시간이 적당하거나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반면, 강의 내용이 지루하게 진행된다면 훈련생들은 그 시간이 너무 긴 것

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시간의 수업시간은 훈련으로 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¹⁸⁷⁾ 그 내용을 구성하고 강의를 통해 만족도를 주는 것은 강사의 책임에 귀속되는 문제가 된다.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98.7퍼센트의 사람들이 유익하거나 매우 유익하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서 강의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전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과목의 목적에 충실하게 강의할 수 있는 강의를 선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어떠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전도를 위한 충분한 동기 부여와 훈련이 될 수 있는 반면, 강사에 따라서는 의욕저하와 능력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제물에 대하여는 175명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반면에, 60명은 많거나 너무 많다고 생각하였다. 전도학교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도 과제의 부담을 언급한 훈련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과제의 부담은 조정의 문제를 갖게 된다. 그러나 과제가 부담되지 않으면, 학습량이 줄게 되고 이것은 자연히 훈련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로버트 콜만은 감독과 지도를 통한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혼에 기쁨을 안겨주는 많은 은혜의 체험도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세계 선교에 비추어 해석됨으로써 더 명확해지고 깊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도사역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할 때까지는 개인적인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¹⁸⁸⁾

따라서 과제물을 제시함에 있어서 왜 그 과제를 이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과제물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선결과제가 된다.

암송에 대한 질문 역시 139명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반면, 76명은 많거나 너무 많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명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

187) 일반적으로 전도폭발 전도훈련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학교도 하루에 운영하는 수업시간을 통상 2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이하로 운영할 경우 통학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이상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과 집중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188) Robert E. Coleman, *주님의 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102.

서 암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암송을 하지 않을 경우 전도에 필요한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예로 들면서 암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실제 강의 중에 암송을 강조하면서 전도폭발 전도훈련에서 복음제시 훈련을 할 때 40분 복음제시 분량에 대한 암송 과정이 있음을 말하면서, 암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한편으로는 4영리의 암송 내용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도 주지시켰다. 암송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의 과제가 있기는 하나,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내용만이라고 숙지하고, 복음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암송할 수 있게 한다면 불시에 전도하게 될 때의 당황스러움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훈련을 하는 동안에 과제로 제시한 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평가를 했다. 그러나 “별로였다”고 평가를 한 사람도 21명이나 있었다. 이는 독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독서는 하였으나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이 된 경우가 있다. 또 독후감에 대한 평가 후에 과제물을 돌려주었는데, 그 평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있다. 또 책에 따라서 아주 감동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는 반면, 지루하면서 오래 읽어야 하는 책을 읽은 경우에는 독서과제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들을 감안할 때 독서과제는 추천도서와 엄선이 더욱 중요해진다. 가능하면 쉽게 읽으면서도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서적을 선별해서 추천해야 한다.

4영리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전도 방법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본 훈련의 장점을 묻는 주관식 설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4영리를 통하여 복음을 정리하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4영리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4영리는 만화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제시하였을 때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4영리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도대상자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4영리는 어느 경우에도 결신을 얻어낼 수 있는 전도용 도구는 분명 아니다. 조셉 알드리치는 말한다.

나는 4영리를 수없이 전해본 결과 복음 증거의 내용과 강조점에
때에 따라 조금씩 달라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즉 전도하고 있
는 대상의 필요에 따라 알맞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다
양함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해지도록 만든다.
이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준비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함을 말
해준다.¹⁸⁹⁾

이런 경우에 전도에 있어서 4영리를 활용하는 문제를 부정적으로 이해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구마 전도법과 전도폭발 복음제시 내용을 가르치기
는 하나,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
지만 한 가지 전도방법에 대한 숙달이 다른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에디 깁스를 통해 배울 수 있다.

한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여러 번 증거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감
을 얻고 나면, 그 때는 다른 방법을 개발할 준비가 된 것이다. 복
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다른 그리스
도인 친구들과 더불어 그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
다.¹⁹⁰⁾

전도 이후에 조별로 모여서 전도결과에 대하여 서로 보고하는 나누는 시간 자체
는 전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준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들이 있다. 또 건의사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몇 가지 있었다. 일단
충분한 시간의 요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의 결과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2시간 내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훈련 기간 자체를
늘려서 해결하든지, 매일 모이는 시간을 3시간으로 조정해야 하는 선택의 과제가 있
다. 또 전체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시간의 부
담을 해결해야 한다. 이 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성실하
게 전도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내용전달을 통해 의욕의 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

189) Aldrich, *생물 전도*, 306-307.

190) Eddie Gibbs,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245.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을 위해 실시하는 노방전도 현장 실습은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답을 하였으나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전도의 어려움에 대한 결과이다. 또 노방전도 현장 실습은 현대 전도의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 전도와 거리가 먼 행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전도대상자를 만났을 때 전도해야만 한다는 전도의 당위성에 대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 에디 깁스는 말한다.

많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실행해볼 기회를 적게 가지거나 전혀 가지지 않는 것보다,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처럼 조금 배우고 많이 실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이다. 전도를 할 때에는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한 가지 접근법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와 역할을 나누어 연습해보라. 또 다른 황금률은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복음의 메시지를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복음을 내 방식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¹⁹¹⁾

이상과 같은 훈련을 통해 얻게 된 효과를 묻는 질문을 했을 때 159명이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역으로 보면 많은 교인들이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았음을 볼 때 무엇보다도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전도훈련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을 알게 된다. 또 145명이 “전도의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를 알지 못했으며, 또 전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본 훈련을 통해 전도의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은 훈련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한 것이다. 이는 4영리를 통한 전도훈련이 가져온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구나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고취가 이러한 결과를 얻게 해 주었다고도 할

191) Gibbs, *Next Church*, 244-245.

수 있다. 이 외에도 70명이 “복음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답한 것은 전도훈련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 중의 많은 수가 전도훈련 이전에 복음에 대하여 듣고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음에 대하여 제람 바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에 있는,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중생을 확신한다고 하는 복음주의신자의 절반 정도는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습관적으로 믿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¹⁹²⁾

전도훈련을 그리스도인을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를 전도자로 세울 수는 없다. 확고부동한 진리의 기반 위에서 전도자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도훈련 이전에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2. 분석에 따른 개선점

존 뎀버는 우리시대의 전도방법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현대에 있어서 다양한 전도방법의 개발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다.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선교 기관들—CCC, Navigators, Inter Varsity Christian Fellowship, 기타 복음주의 계열의 각종 선교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전도폭”(Evangelism Explosion), “여기에 생명이”(Here’s Life, CCC), “루이스 팔라우 대종집회”(Luis Palau Crusades) 등의 전도 활동에도 그 참가인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항상 추수할 일군의 수가 부족한 가운데에도 금세기에 있어서처럼 수많은 사람

192) Barrs, *현대문화 속의 전도*, 24-25.

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던 적은 일찍이 교회사에 없던 일이다.¹⁹³⁾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완벽하다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Wimber는 보다 차원 높은 전도 방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도는 대부분의 경우 신약성서의 기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다. 추수할 일군의 수가 부족한 것이 항상 문제로 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 서구세계에 있어서의 전도에는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차게 역사하는 전도 방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¹⁹⁴⁾

지금까지 소망교회의 전도학교를 실시하고 그 훈련내용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은 Wimber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분석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전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선점들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시간의 문제이다. 소망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 매주 2시간씩 8주간의 교육과정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또 실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의 교육일정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총 16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별 나눔 시간과 실습시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시간이든 교육기간이든 둘 중의 한 가지를 늘려서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1차, 2차 또는 초급, 중급으로 나누어 전도를 배우기 원하는 교인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운영자들의 헌신과 공간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둘째, 실습에 있어서 시범의 문제이다. 소망교회에서의 전도에 대한 실습은 주로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2회에 걸쳐 서울시내 노방전도와 제주도 전도여행을 실시하

193) John Wimber, 능력전도 (*Power Evangelism*),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70.

194) Ibid., 73.

여 두 명씩 팀을 이루는 전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모든 전도는 개별적으로 가정이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전도를 실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형천은 복음 내용 제시 훈련에 있어서 시범 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먼저 지도자가 자세히 가르치고 시범을 여러 번 보인 후에(현장 실습 포함), 처음에는 훈련생 두 사람이 교대로 훈련하게 하고, 다음에는 가족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하고 녹음해 오도록 하여(숙제, 시험) 함께 듣고 분석하며 평가한다.¹⁹⁵⁾

전도폭발 전도훈련에서처럼 선배로부터 전도의 시범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훈련생들이 훨씬 더 전도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셋째는 조별 모임 시간의 운영이다. 8주의 전도학교 운영 중에 전도를 실습하는 시간은 4주이다. 그러므로 조별로 모여서 전도 실습 보고를 갖게 되는 것도 4회 정도이다. 그리고 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형식적인 보고를 주고받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 제1기 전도학교에서는 조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조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되어 조장의 능력에 따라 조의 분위기가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조별 모임은 전체 집단교육에서 다룰 수 없는 개별적인 점검과 조원들간의 상호 격려와 기도 등을 통하여 보다 내면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먼저 잘 훈련되고 엄선된 조장이 선발되어야 한다. 조엘 코미스키는 “성공적인 소그룹 모임은 모든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¹⁹⁶⁾고 했다. 그래서 제2기 훈련부터는 1기 훈련생들 가운데 훈련을 잘 받고 열정적이면서도 조원을 잘 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장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훈련 전에 조장모임을 통하여 조장들이 숙지하여야 할 내용과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주지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조별 보고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당초에 기대한 조모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강의로 인해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 효과를 기

195) 김형천, *효과적인 복음전도*, 50-51.

196) Corniske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45.

대할 수 있다. 레너드 스위트는 말한다.

협동이라는 리더십 기술은 모든 것—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로부터, 무엇을 믿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이르기까지—을 변화시킨다. 근대 세계에서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 포스트모던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가고, 그들이 자신과 함께 가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다. 협동의 핵심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혼자 설 수는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이끌어내게 되면 모든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 협동이 없다면 영향력도 없다.¹⁹⁷⁾

협력은 중요하다. 협력은 에너지의 상승 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도훈련에 있어서도 한 조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전도의 능력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조의 리더와 조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로 훈련을 위한 장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소망교회는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이기는 하나, 교육을 위한 부속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전도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교실 분위기의 공간이 없어서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는 장소에서 의자를 돌려놓고 조별 보고 시간을 갖다 보니 소란과 비좁음으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었다. 그래서 훈련에 있어서 장소의 문제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는 효율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보다 더 효과적인 훈련을 진행하고자 하면 훈련생들이 강의와 교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한 교육장의 구비가 필요하다. 또 강의 이후에는 조별로 모여서 진지하게 실습 결과를 나누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위한 공간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교육시간을 배치하는 문제가 있다. 최초의 소망교회 전도학교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소망교회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공부가 있다. 수요일 오전에는 권사회나 공동체 모임이 있고, 금요일은 구역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공히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인데, 성경공부와 겹치지 않도록 수요일 오후로 결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인

197) Leonard Sweet, *포스트시대의 교회는 가라 (Aqua Church)*,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5), 282.

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전도를 생활화하는 훈련은 여성들이나 시간이 많은 사람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류영모는 말한다.

그동안 예배당 안에서 영광을 거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아파트 숲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목사 혼자 울부짖는 목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작은 소리를 내는 풀벌레가 되어서 울부짖어야 하며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 안에 한정되지 않고 온 지역 사회에 온 나라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의 원리입니다. 평신도라는 다양한 낚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¹⁹⁸⁾

그래서 2기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하였다. 그로 인해 남성들의 참여도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참여도는 저하되었다. 그리고 남성 성도의 증가 여성 성도의 증가는 자연히 분위기의 경직도 가져왔다. 그래서 3기는 다시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시간을 옮겨 진행하였다. 해마다 시간을 옮기는 것이 학교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들이 시간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기는 하였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된다. 개교회에서 전도학교를 운영하게 될 경우 이러한 시간에 대한 안배가 참여도를 높이는 관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의 지속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전도학교를 성실하게 이수한 성도들은 지속적인 훈련과 전도활동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훈련과 전도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지속적인 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칼빈 라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훈련은 계속 이루어져야만 한다.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평생 사역하도록 하기에 적합한 한 차례의 훈련 프로그램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아주 적극적인 회사는 단순히 기술 쇠퇴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참모들을 재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용자

198) 류영모, *꿈대로 되는 교회*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9), 323.

들의 예리함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교육한다. 우리들은 배우는 것이 많은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은 중요한 정보를 통해 가장 앞선 위치에 서게 해 준다.¹⁹⁹⁾

소망교회에서는 1차적으로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소망교회 내에 있는 전도를 위한 공동체, 예를 들면 병원 선교 공동체, 소망 전도단, 노숙자를 위한 선교 공동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리고 계속 교육을 위하여서는 2개월에 한 번씩 유명한 전도자를 강사로 모셔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전도의 열정을 다시 고취시키고, 전도의 방법을 배워나가는 방식을 익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선결 과제는 2차적인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개선안들을 반영한다면 앞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전도훈련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전도를 배우고, 실제로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199) Ratz, Tillapaugh, and Augsburg, *선교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94.

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소망교회에서 실시된 전도훈련과 그 훈련의 결과로 성도들이 얻게 된 유익, 그리고 그들이 제시했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훈련과정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언제나 개혁을 위한 도전정신의 요구는 끊임없이 지속됨을 인지하게 된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요약은 먼저 실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제언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제 1 절 요약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의 핵심과제인 전도를 훈련하는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전도 훈련을 통한 전도의 경험을 살리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실시된 소망교회의 전도훈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본고의 목적으로 두었다. 따라서 본고는 소망교회의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될 것이며 이 연구의 응용을 통한 전도훈련의 확대를 기대하였다.

전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일차적으로는 전도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매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서도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도 전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구약의 모든 계명을 집약할 때 그것은 전도의 명령으로 귀결되는데, 이 명령의 이행으로서 전도의 훈련은 필요하다. 그리고 전도를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서는 전도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서도 전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3장에서는 먼저 전도의 방법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성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케리그마'적 방법을 통하여 인간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인식시키신다. 더불어 사랑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예수님의 전도는 선포와 보내심 그리고 증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전도자는 그 일을 위하여 보냄받은 존재이며,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성령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출발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담당하신다.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서 전도사역을 더욱 능력있게 해 주신다.

전도의 방법의 이해와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복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는 전달은 듣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복음 이해는 전도의 훈련에 있어서 최 선결 과제이다. 그리고 전도자는 다양한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이고, 기도를 생활화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하에서 효과적인 훈련과정을 구성하기에 앞서 기존에 많이 알려진

몇 가지의 전도훈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많이 보편화 되고 있는 전도 폭발 훈련, 4영리 전도법, 그리고 총회의 전도학교에 대하여 훈련의 개요, 훈련의 내용, 훈련의 특성 등을 검토하고 각각의 훈련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훈련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계 중심 전도, 소그룹 전도, 고구마 전도법 등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검토를 통하여 과연 어떤 훈련이 적합한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모든 훈련이 완벽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훈련들의 장점들을 살려서 전도자를 훈련하는 일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5장에서는 소망교회에서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였던 전도훈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훈련의 내용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소망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도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소망교회가 실시한 전도훈련의 방법을 훈련 기간과 시간의 운영, 훈련과정과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망교회가 실시한 훈련의 내용은 8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주고 전도의 자신감을 고취하는 것을 선행하였다. 그리고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전도훈련의 중심으로 4영리 전도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그 후에는 전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반대질문을 다루는 방법과 노방 전도 현장 실습을 통하여 전도에 관한 실전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도자의 영적 준비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훈련을 구성하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훈련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6장에서 진행되었다. 이 평가를 통하여 훈련의 내용과 진행사항 그리고 일정, 강의 과제물 및 실습 등에 대하여 훈련생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았다. 이 외에도 전도학교가 가진 장점과 단점, 그리고 건의사항들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도훈련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망교회의 전도훈련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분석에 따른 개선점들이 도출되었다. 그것은 적절한 시간의 설정과 배분 그리고 운영의 문제이다. 또 실습에 있어서 바른 모델을 통한 시범 과정도 요청된다. 전도의 결과를 나누는 조별 모임 시간의 운영도 넉넉하게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훈련에 적합한 장소의 물색과 구성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교육 시간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의 운영이 필요하였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 2 절 제언

지금까지 소망교회의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전도 훈련의 필요성과 그 과정을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3년간 해마다 8주간에 걸쳐서 실시된 소망교회의 전도훈련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전도훈련들을 집약하여 소망교회의 실정에 맞게 소망교회의 교인들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일에 대한 결과는 많은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냄으로 소망교회에 있어서만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효과적인 전도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장의 서두에서 제기한 전도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도의 결과로 교회의 성장이 되었는가의 여부는 알 수 없다.²⁰⁰⁾ 다만, 훈련을 받은 훈련생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복음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령을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다수의 소감 피력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전도훈련에 대하여 훈련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소망교회에서 실시하였던 전도훈련은 다른 여타의 훈련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과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전도의 생활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훈련을 구성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원리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명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고취가 필요하다.

200) 소망교회는 매주 30명 내외의 새 신자가 등록을 한다. 그러나 그 새 신자들이 전도학교를 수료한 훈련생들의 전도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목회자이다. 목회자는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로서 그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그리고 목회의 대상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들을 향한 훈련의 과정을 개설하고 진행을 책무를 지닌다. 조셉 알드리치의 말대로 목사가 먼저 불신자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²⁰¹⁾ 그런 점에서 암스트롱이 목회자를 전도자로 본 것이다. 물론, 이 때 목회자 개인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서 그 내용의 구성과 진행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이것이 왜곡되어서 교회의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여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전도를 강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는 생활화 되어야 하고, 그렇게 생활화 될 수 있는 목표를 향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 가운데에는 전도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생활화되어야 하고, 그렇게 개발된 영성은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훈련을 구성하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처한 지역의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또 그 교회의 성도가 만나는 불신자의 성향이나 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교회의 전도훈련이 획일화될 필요는 없다. 또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그 어떤 전도훈련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를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소망교회의 전도훈련은 그러한 원리 하에 구성되었고,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훈련의 과정이나 내용이 절대적 창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훈련을 잘 조합하여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알려진 여러 가지 전도훈련을 가지고 각 교회의 성격에 맞게 창의적으로 변경 또는 조정 혹은 조합하여 각 교회의 실정에 가장 일치할 수 있는 형태의 전도훈련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다우니의 *개인전도핸드북*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어린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

201) Aldrich, *생물전도*, 244.

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심지어는 가톨릭 신자들을 다루는 방법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인, 몰몬교도들과의 차이점도 제시해 준다. 또 윤성호의 *전도시 반대질문 100가지*도 창의적인 전도훈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중에 알려진 도서와 훈련과정들을 참고로 하여 그 교회의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목회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획되고 구성된 전도훈련이라면 이제 그 훈련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내용으로든 전도훈련은 계속 되어야 한다. 훈련의 효과성을 계수화하여 점검할 수 없거나 전도된 새신자의 정착률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전도는 중단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결과와 관계없이 전도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말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씨들의 4분의 1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 4분의 1이라도 진정으로 회심한다면 만족하지 못하겠는가? 오늘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아닌가? 무디는 10%만 되어도 좋은 비율이라고 하였다.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이 거짓 신자라 해도 절망할 이유는 안 된다.²⁰²⁾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교인들을 훈련하고 교인 모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은 한 개의 과정으로 동일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양산해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 이것은 전도 폭발 훈련이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잘 구성되어 있는 편인데, 이후에도 훈련된 전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서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도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김영육은

202) Smith, *구령의 열정*, 117.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교회 전도의 맹점은 갑작스런 전도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에 양육이 어렵다는 점이다. 평소에 약간의 관련이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억지로 데리고 오는 방식은 전도의 동기보다 깊은 신뢰성과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한 번만 와 달라는 일회적 동기와 물질적인 선물 공세에 기초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관심과 기도로 돌보아 주었던 태신자를 교회로 인도함으로 양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²⁰³⁾

김영욱의 주장은 틀림없다.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출산한 후에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소망교회는 오랫동안 이 양육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철학으로 여겨져 왔다. 소망교회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 '방목형 목회'²⁰⁴⁾철학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그러다 보니 새 가족을 위한 양육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전도된 새 신자가 정착할 수는 과정이 없는 교회였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 가족부가 신설되고, 새 가족교육이 분기별로 2회씩 실시되고 있다. 전도된 새 가족을 맞이하고 양육할 준비가 없는 전도는 열매 없는 노력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도는 한 생명을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사역인데, 그렇게 탄생된 새 생명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론 켄니는 말한다.

우리는 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영적인 어린 아이로 태어나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이 다시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책임은 사실상 더 커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는 마치 한 아기가 출생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부모는 아기가 탄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상 출생하고 난 후에는 수년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돌보면서 오는 즐거움과 축복들은 그 일을 하는 수고 이상의 보람을 안겨 줍니다.²⁰⁵⁾

203) 김영욱, *21세기 전도전략*, 41.

204) 임운택, *소망교회 이야기*, 64.

205) Sanny, *개인전도의 방법*, 76.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전도하고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 과정의 그룹을 떠나서 전도는 훈련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훈련과 함께 전도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곽요섭, *새 세대의 목회를 위한 교회성장원리*, 서울: 서울프레스, 2000.
-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서울: 규장, 2001.
-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김상복, *당신은 확실히 전도하십니까*, 서울: 나침반, 2000.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영욱, *21세기 전도전략*,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김형천, *효과적인 복음전도*, 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7.
- 류영모, *꿈대로 되는 교회*,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9.
- 엄호섭, *모유전도법*, 서울: 국민일보사, 2002.
- 옥한흠, *전도자*, 서울: 규장, 2000.
- 윤동일, *교회학교 1%의 변화로 성장할 수 있다*, 서울: 좋은 씨앗, 2006.
- 윤성호, *전도시 반대 질문 100가지*, 서울: 예찬사, 1995.
- 이광순, 이용원, *선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이상만, *오이코스 전도폭발*,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5.
- 임윤택, *소망교회 이야기*, 서울: 베드로서원, 2001.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편, *개인전도훈련교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학교 편, *하나님의 사랑이야기*,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학교, 1995.
- 한국대학생선교회 편, *4영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순출판사, 1999.
- 한국대학생선교회 교회훈련국, *전도: LTC 1*, 서울: 순출판사, 2000.
-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편, *전도폭발 III 1단계 훈련교재*, 서울: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1999.
- _____, *전도폭발 III 지도자 임상교재*, 서울: 한국 전도폭발 출판부, 1999.

2 번역 서적

- Aldrich, Joseph C. *생활 전도 (Life-Style Evangelism)*. 오정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 Babin, Pierre. *종교 커뮤니케이션의 새 시대 (The New Era in Religious Communication)*. 유영난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3.
- Barrs, Jerram. *현대문화 속의 전도*. 한국라브리 번역위원회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5.
- Bonnke, Reinhard.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 (Evangelism by Fire)*. 서울서적 편집부 역. 서울: 서울서적, 1994.
- Coleman, Robert E. *주님의 전도계획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Corniskey, Joe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How to Lead a Great Cell Group Meeting)*. 편집부 편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5.
- Craft, Charles H. *기독교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Downey, Murray W. *개인전도 핸드북 (The Art of Soul Winning)*.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 Drummond, Lewis A. *현대전도학 서설 (Leading Your Church in Evangelism)*. 변은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Evans, William. *개인전도학 (Personal Soul-Winning)*. 윤무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Eims, LeRoy. *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What Every Christian Should Know About Growing)*.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2000.
- Ford, Leighton.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Good News is for Sharing)*. 이숙희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5.
- Frazee, Randy. *21세기 교회연구: 공동체 (The Connecting Church)*.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5.
- George, Carl F. et al. *소그룹사역의 새로운 방향 (New Directions for Small Group*

- Ministry*).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 역,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4.
- Gibbs, Eddie,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Green, Michael, *초대교회 복음전도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 _____, *After Alpha '알파코스'와의 만남 그 이후*. 유용국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 Haggard, Ted, *뉴라이프 전도소그룹 이야기 (Dog Training, Fly Fishing & Sharing Christ in the 21st Century)*. 편집부 편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 Hybels, Bill,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 정성묵 역, 서울: 두란노, 2006.
- Hybels, Bill & Mark Mittelberg,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한기웅 역, 서울: 두란노, 1999.
- Kennedy, D. James, *전도폭발 (Evangelism Explosion)*. 김만중 역, 서울: 한국전도폭발출판부, 1999.
- McGavran, Donald A., *하나님의 선교전략 (The Bridges of God)*. 이광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McKay, William J., *가정전도이야기 (Me, an Evangelist?)*.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8.
- McLaren, Brian, *저 건너편의 교회 (The Church on the other side)*. 이순영 역, 서울: 낮은 울타리, 2002.
- Packer, James I.,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주권 (Evangelism & The Sovereignty Of God)*. 이장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Peace, Richard, *신약이 말하는 회심 (Conversion in the New Testament: Paul & the Twelve)*. 김태곤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 Peters, John,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세상속의 전도자 (The Evangelist's notebook)*. 이혜림 역, 서울: 서로사랑, 2004.
- Ratz, Calvin, Frank Tillapaugh, and Myron Augsburger, *선교와 전도 어떻게 할 것인가? (Mastering Outreach & Evangelism)*. 하재성 역, 서울: 도서출판

햇볕, 1994

Sanny, Lorne C. *개인전도의 방법 (The Art of Personal Witnessing)*. 네비게이토 출판사 역, 서울: 네비게이토 출판사, 1987.

Scarborough, L. R. *전도학 개론 (With Christ After the Lost)*. 이명희 역, 서울: 보이스사, 1986.

Sisson, Richard *전도자 훈련교본 (Training for Evangelism)*. 보이스사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82

Snyder, Howard A. *참으로 해방된 교회 (Liberating the Church)*. 권영석 역, 서울: IVP, 2006.

Stott, John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8.

Smith, Oswald J. *구령의 열정 (The Passion For Souls)*.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Stevens, Paul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6.

Sweet, Leonard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Aqua Church)*.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5.

Thompson, Oscar W. *관계 중심 전도 (Concentric Circles of Concern)*. 주상지 역, 서울: 나침반, 1984.

Tozer, Aiden W. *세상과 충돌하라 (Tozer Speaks to Students)*.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5.

Wilson, James I. *전도전략원리 (The Principles of War)*. 이동원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Wimber, John *능력전도 (Power Evangelism)*. 이재범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5.

3. 외국 서적

Armstrong, Richard *The Pastor As Evangelis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4

Kee, Howard Clark, *Good News to the Ends of the Earth*, London: SCM Press, 1990.

McGavran, Dona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4.

Reeves, Daniel and Ronald Jenson, *Always Advancing: Modern Strategies for Church Growth*, San Bernadino: Here's Life Publishers, 1994.

Schaller, Lyle, *Innovation in Ministry*, Nashville: Abingdon, 1994.

Torrey, R. A. *How to Obtain Fullness of Power*, London: Lakeland Paperbacks, 1955.

Wells, David F. *God the Evangelist*, Grand Rapids: Eerdmans, 1987.

Vita of
Chang Jun Kim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Somang Presbyterian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June 7, 1965
Marital Status:	Seoul, Korea Married to Jin Ie Kim with two children, Hyoun Ah and Yun Ah
Home Address:	625-1 Sinsadong Gangnamgu, Seoul
Home Phone:	822) 516-2832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17, 2001

Education:

B. A.	Han Yang University, Seoul, 1990
M. Div.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9
Th. M.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4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7

Personal Experience:

2003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Somang Presbyterian Church, Seoul
-----------------	--

2001 to 2003	Assistant Pastor of Dongkwang Presbyterian Church, Bucheon
--------------	--